

갱신과 부흥 Reform & Revival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009 Vol.2

권두언

- 05 · 교회개혁의 과제②: “오직 그리스도로” 이환봉

개혁교회 강단

- 10 · 교회의 회복과 부흥 (미 7:10-12) 존 칼빈
24 · 개혁신앙 (신 34:1-12, 수 1:17-18) 홍반식

개혁신학산책

- 39 · 참된 부흥과 종교개혁 황대우
52 · 존 오웬(John Owen)과 부흥 이성호
64 · 마틴 부서 (Martin Bucer)와 성령의 인치심 빌름 판 스파이커

개혁신앙 에세이

- 75 · 사교육과 그리스도인 조성국
85 · 마부작침(磨斧作針)과 개혁주의 견인론 편집부

서평

- 91 · 옥성호,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김철봉
97 · 리처드 마우,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 황대우
103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이상웅

- 110 학술원 소식 편집부

갱신과 부흥 · 2009년 3월 13일 발행 · 통권 2호

역은이 이환봉 · 이신열 · 피넨이 김성수 · 피넨곳 고신대학교출판부 ·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49-1
전화 051_990_2266 · 팩스 051_911_2526 · 이메일 kirs@kosis.ac.kr · 편집인쇄 YOOND_{press}® 02_409_4399 · 디자인 김귀근
ISSN 2005-4211 값 3,000원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개혁주의학술원 홈페이지 확대 개편

참빛교회(김윤하 목사)의 후원으로 개혁주의학술원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기존 홈페이지의 도안과 구성을 새롭게 편성하고 더 많은 개혁주의 연구 자료들을 추가하였으며 현재의 웹주소(<http://www.kris.kr>)와 더불어 한글주소(<http://개혁주의.kr>)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다.

웹주소 <http://www.kris.kr> 웹 한글주소 <http://개혁주의.kr>

개혁주의학술원 후원교회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세계적인 최상의 연구기반 형성과 학술연구 활동을 약속합니다.

2009. 3. 현재 / 총 54 교회 / 가나다 순

가음정교회	대저제일교회	부산동교회	성안교회	충무제일교회
거제교회	독립개신교회	부산법천교회	성은교회	침산동부교회
거창교회	동부산교회	부산북교회	용호중앙교회	포도원교회
경주교회	동산교회	부산비전교회	울산동일교회	포항대흥교회
고남교회	동상교회	부산서면교회	제4영도교회	한밭교회
군북교회	동향교회	부암제일교회	진목교회	한울교회
광주은광교회	등촌교회	사직동교회	진주동부교회	화명제일교회
광주은성교회	마산교회	삼일교회	참빛교회	활천제일교회
김해중앙교회	마산삼일교회	삼천포교회	창원교회	향상교회
남천교회	매일교회	삼한교회	창원은광교회	(가나다순)
대구광명교회	명덕교회	서문로교회	창원한길교회	
대구서광교회	모든민족교회	서울시민교회	창원한빛교회	
대양교회	부곡중앙교회	성도교회	초장동교회	

무통장 입금 및 자동이체 계좌

● 농협 485-01-032852 (예금주 : 고신대개혁주의학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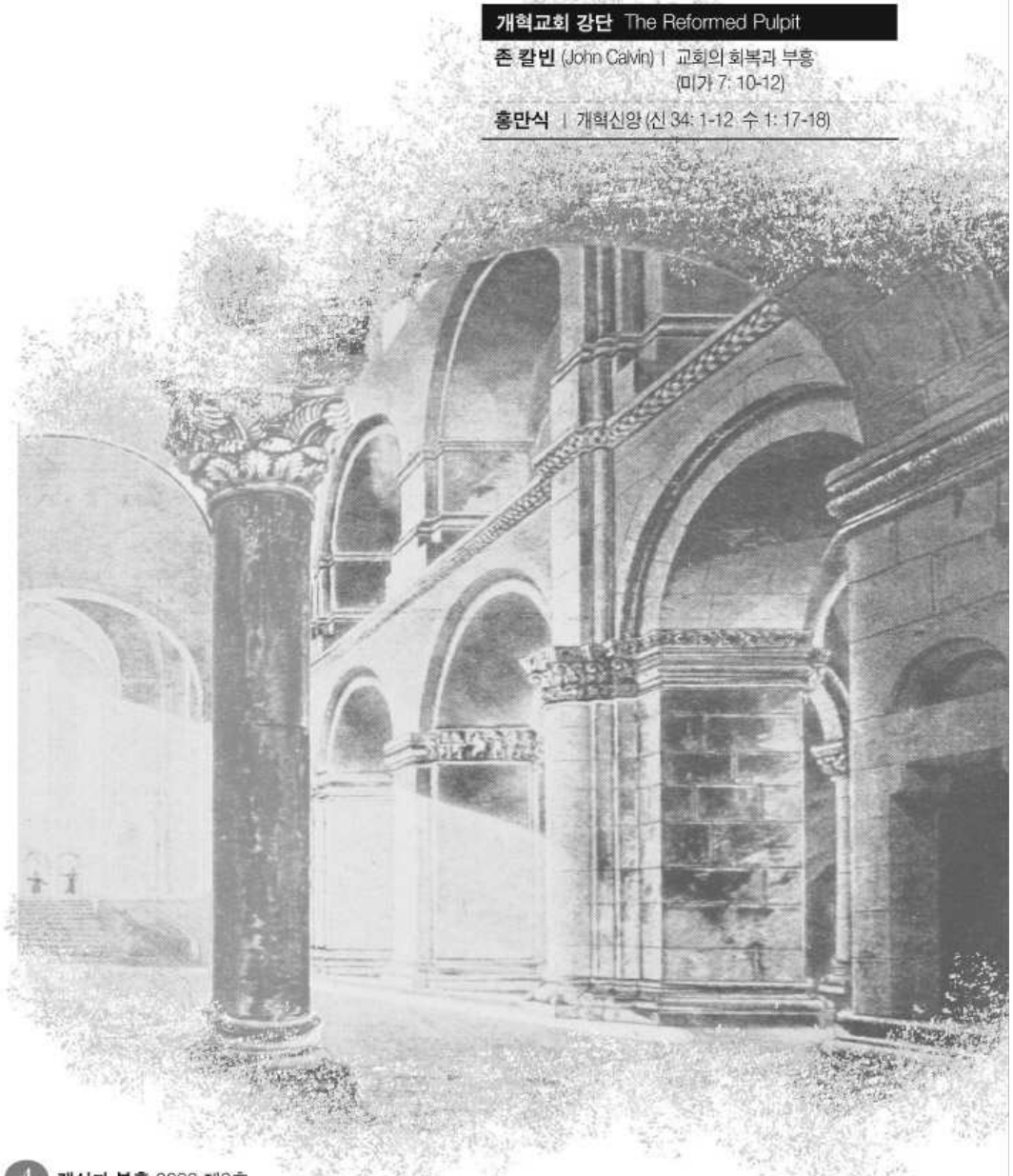
권두언 Preface

이환봉 | 교회개혁의 과제②: "오직 그리스도로"

개혁교회 강단 The Reformed Pulpit

존 칼빈 (John Calvin) | 교회의 회복과 부흥
(미가 7: 10-12)

홍만식 | 개혁신앙 (신 34: 1-12 수 1: 17-18)



개혁 교회의 과제 ②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의 사제주의(sacerdotalism)는 구원의 필수적 매개(necessitas media)인 성례를 집행하는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보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선행에 의한 구원 교리와 공적주의 교리, 이와 연관된 면죄부 교리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중보적 능력을 가진 많은 성자들을 만들어 내었고, 그 정점에 마리아를 두게 되었다. 마침내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상 인류의 공동 대속자(co-redemptrix)와 공동 중보자(co-mediatrix)로 추앙하며 기도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만이 직면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로서 서정시인 이었던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는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해

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의 많은 르네상스 지성인들은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적 진리가 드러나 있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에 근거한 자연신학과 자연종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되 심지어 구원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로”의 원리를 통해 중세의 그러한 모든 인간성 신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하나님만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도적 신앙을 옹호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육하신 자기계시이며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성경적으로 확정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완성과 총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연신학을 반대하였으며,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편구원론과 종교적 다원주의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물론 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로”를 주장하였다고 해서, 기독교 일변도의 신학을 추구하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통하여 교회의 직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다만 성경의 가르침(행4:11)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선언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확신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높아만 간다.

중세 계몽운동(the Enlightenment)의 미덕이었던 '관용' 과 더불어 상대주의는 18세기 이래 현대 사회의 주요한 신념이 되어 왔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해야 한다는 것은 현대 세계의 보편적 미덕이 되었다. 특히 오늘날 보다 철저한 상대주의를 지향하는 포스터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종교적 다원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천주교가 석가탄신을 축하하고 조계종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이 종교적 관용과 미덕으로 극구 칭송을 받으며, 주요 일간신문은 “하나님이 절에 가고 부처님이 교회 갈 때” 비로소 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종교 간의 평화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오늘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희생을 노래하는 소리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비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사라져 가고 오히려 십자가 없는 번영과 영광, 자기공정과 자력구원의 환상으로 가득하다. 스프롤(R. C. Sproul)이 “자신이 하나님의 검열을 통과하기에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그 만큼 더 필



요로 하지 않게 된다” 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거나 노래할 마음을 점점 잃어 가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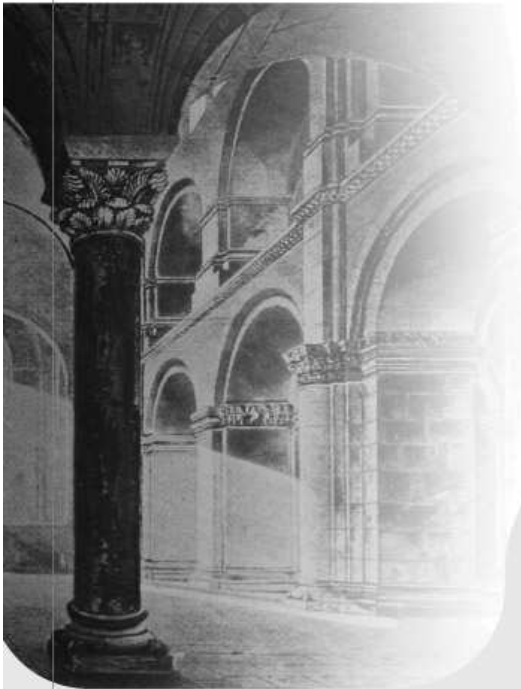
기독교와 유대교와 무슬림은 각기 그 이름이 다를 뿐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를 표하는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전체의 2/3에 이른다고 한다. 버지니아 대학교(Virginia University)의 사회학자 헌터(J. Hunter)는 미국 복음주의 신학생의 35%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지 바나(George Barna)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도들 중의 35%가 “하나님은 모든 선한 사람들이 죽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구원하실 것이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한국갤럽의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의식 조사에서도 불신자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는 답변이 1989년에는 38.9%였는데 2004년에는 31.3%로 15년 사이에 약 8%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그리스도 없이도 불신자 구원이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이 8%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인 중에서 “여러 종교 교리는 결국 비슷한 진리를 말한다”에 53%가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3.9%가 “모름 또는 무응답”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부정하는 보편구원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2004년도 조사에서 타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수

그러나 개혁신학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로"의 원리를 통해 중세의 그러한 모든 인간성 신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도적 신앙을 옹호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육하신 자이며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성경적으로 확증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함의 완성과 총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관함을 반대하였으며,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편구원론과 종교적 다원주의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가 개신교에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오직 그리스도로"의 원리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은혜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우리의 칭의와 화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믿는다. 만약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선포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강권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복음을 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읽는 칼빈의 설교 ②

교회의 회복과 부흥 (미가 7:10-12)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 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

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미가 7:10-12)

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볼 것이고 그들의 기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에 이제, 그들의 대적이 하나님의 의를 보리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의 인내를 연단하기 위하여 악인들을 한동안 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잠시 믿지 않는 이들은 믿는 자들의 환난을 보면서 자기들이 승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심이 그들로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은 당신의 징계가 짧고 항상

실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복음의 순전한 교훈을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이 약속의 일부를 이루셨을
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시리엔 온갖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지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복된 결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그 때를 크게 감하신다는 것
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 눈은 불신자들을 근본적
으로 다른 방식으로 벌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로 그들을 땅 속 깊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조롱할 때 우리는 불행한 생각을 가지지 않
시다. 우리의 환난을 참아 냅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소망과 소원 모
두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잔인하여 우리를 완
전히 없애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소원이 반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실로 그 하나님의 진
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에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그들은 크게
변성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생각하는 시험에 들게도 될 것
입니다. 그러함에도 미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날을 보
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진흙같이 밟

으시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시는 성령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우리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혹독한 징벌을 시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드시고 그들을 유순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난을 가볍게 하십니다. 그들이 혹독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들과 패역자들은 조금도 살아 날 가망이 없이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두운 구름 같은 대적들의 수중에 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철저하게 의지하고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이 보이는 악인들의 큰 번영을 볼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선고를 집행하시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미워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모든 일이 우연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실로 악인들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환난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서, 모든 것이 순전히 운수소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자유분방한 발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당신을 대적하여 거스른 모든 자들을 징벌하실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같이 금방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가가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다.”고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37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악인들의 번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피하였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님께서 그들의 죄를 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지나치실 것임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래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란 중에 있고 아무 것도 우리의 편에 서있지 않은 것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하실 것을 기억합시다. 파멸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쳐질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더 놀라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온 세상이 구원 얻기를 소원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육체적인 마음을 따라서 악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터인즉, 모든 영혼들의 저주를 즐거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가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미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관심은 아주 미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지각과 정욕은 전적으로 혼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의 저주를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불의한 자들의 저주를 사실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서 복수하고픈 마음으로 충동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악인들의 저주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 복수심으로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이것은 이 대목을 강해하면서 우

리가 주목해야 할 첫째 요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둘째 요점은, 미가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재난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소원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것을 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어 당신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수를 행하시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람에 대한 것은 잊어 버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사 당신께로 오게 하시는 자들과, 당신의 양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을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이들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는 그들의 환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악인들이 제압을 당하고 거부되는 정도만큼 더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미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인들이 저주 받는 일을 즐거워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에 기초하여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란 심하게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들은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에 의하여 충동을 받기보다 순결과 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영화롭게 하는 데 기울여져야지 우리 자신의 복수심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

하여 모든 인간적인 정서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 다른 치방이 없음과, 그들이 패역자임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알리고 당신의 위엄을 높이시기 위해 그들을 저주하실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악인들의 저주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주당하는 것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강한 복수심에게 온전히 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정서란 극단적인 데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정욕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뜻과 맞게 해주십시오 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 복수심에서 건지 사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무분별함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악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켜 당신께 순종하는 자로 만드실지 아닐지 말할 수 없으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고 해서 네게 온 유익이 무엇이냐?” 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전

혀 지키지 못하셨다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심을 연단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우리로 환난 당하게 하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로 매나 막대기로 씨름을 당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악인들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성모독을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즐거워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야 합니다. 미가의 본을 통해서 보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왕인 히스기야는 산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철회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모독하는지 들으소서. 그들이 이 성을 구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을 그냥 용납하시려나이까?”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기도의 제일 원리로 삼아야 할 기도 방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악인들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만과 오만으로 눈멀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운데 “우리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을 잘 눈여겨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대적하는 우리의 제일 무기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크게 세력을 떨칠 때마다 시험당하여 방황하는 많은 이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



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심을 보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미가의 말을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악인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 믿음이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대비하여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절

망케 하려 할 때 쓰는 오래된 수법입니다.

다윗에게도 그 방법을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악인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길!”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의 믿음, 심지어 우리 주님의 믿음까지도 조롱하는 것을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식으로 시험하시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정당한 기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전적으로 악에 방임시킨 악인들은 그들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무거운 손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날에 성벽이 재건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여기서 은유적(隱喻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집과 같으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항상 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벽과 문들이 재건 될 것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며, 교회가 파멸된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말합니다. “네 성벽이 건축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대목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시지만 하던 더 이상 그 성에 조공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미가의 의도를 전혀 알아맞히지 못한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에 대하여는 눈이 멀어 있어서 전혀 그 문제에 대하여는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미가는 교회를 계속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합니다. “실로, 너는 큰 파멸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다시 회복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온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기회에 그 문제를 더 분명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가 이 대목에서 사용하는 명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경우에는 규례, 율법, 계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조공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공적인 법령에 따라서 나라에 공물을 바치라는 명을 따라 바치는 경우와 같이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느 것을 택하든 의미는 같습니다.

미가의 의도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하여 백성들이 압제당하는 기간이 결국은 끝나게 될 것임을 말해 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려는데 있습니다. “네가 노예 된 자리에서 벗어나 성벽을 재건하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 날에 칙령이 반포될 것이다.” 곧 유대인에게 자유를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약속은 그 기간 동안에만 한정 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 내셨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때까지의 모든

구속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요약하여 말하건대, 미가는 교회의 원수들이 우리를 이긴 것 같이 보더라도 결코 우리가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일들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 파멸에서 건지실 것임을 견고하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지는 다음의 시편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주여, 다시 세울 때가 왔사오니 예루살렘의 반석들을 기억하소서.” ‘예루살렘의 반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파멸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반석들로 하여금 중도에 좌절당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재건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사실상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중에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 있던 한 포로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미가의 영감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할 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포로로 잡힌 기간이 짧을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나이다. 주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도 오늘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황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 발판을 확보하셨으나 일은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멸케 한 장본인들으로써 더 이상 황폐함 속에서 고쳐지지 않게 하여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복음의 순전한 교훈을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 이 약속의 일부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고통가

운데 있는 것을 불지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질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직무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 미가 또한 이사야가 말하는 바에 따라서 공물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심과 주님의 도래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곤고하게 하는 멍에를 깨뜨려 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동안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공물을 바치라는 조례와 칙령이 반포 될 것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 아래서 종살이 할 때에 계속 공포를 느낄 것이다. 공물을 바치라는 사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폭군의 부하들이 너희를 탈취하고 착취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미가가 “공물 드리는 일이 제거될 것이다.”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였던 짓밟힘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황주의 아래서 끔찍하게 종노릇한 데서 건짐 받는 것도 역시 이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멍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멍에는 우리를 신체적으로 압제하였을 뿐 아니라 잔인한 폭군에게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마귀의 괴롭게 하는 파멸의 무서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짐을 단순히 가볍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모든 전통과 사람들이 지어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 이상 영적으로 구급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모든 자유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롭고 달콤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황 주위의 명에서 건져 주실 때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식하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자원하는 심정과 기꺼운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간이 만든 제도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미가를 통해 주신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러한 자리에서 건짐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와 사람들과 그 속박의 굴레에서 건져 주사 우리로 기꺼이 당신께 나아오게 하셨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서로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롬 1:25)고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압제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를 조아 매어 말같이 길들여서 사단에게 넘겨지는 자들이 아니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완고함과 궤역함으로 가득하여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끼실 때에도 우리를 파멸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교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서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게 하실 수 있으신 그 무서운 권능을 과거에 보여 주셨다면, 복음은 그보다 더 크고 효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한 가련하고 눈 먼 이교도의 칙령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면, 당신이 자신을 낮추사 땅에까지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크신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으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배은망덕으로 자신을 과멸시키지 않기만 하면 말입니다.

미가가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재건되게 하라는 명과 칙령이 반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를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라. 너희로 잠시만 포로로 잡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참고 견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인내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라. 너희가 참으로 그 약속을 믿으면 그리 되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미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 가운데서 오히려 선을 이루실 소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크게 교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좌절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이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사 “오라” 하시면 그 어디라도 따라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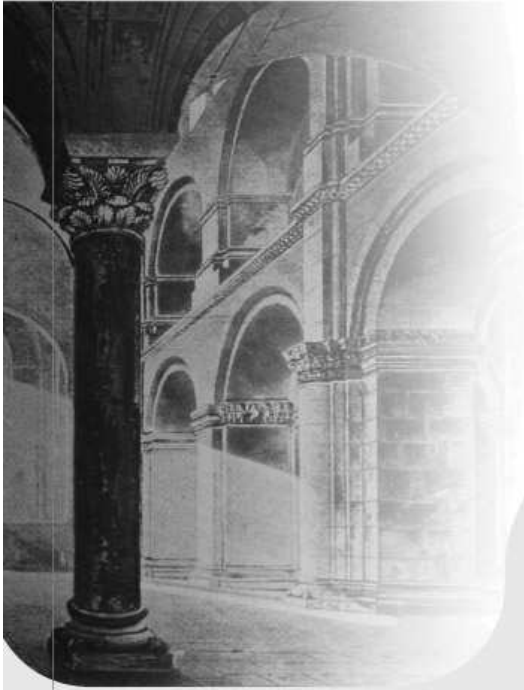
이 거룩한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자신을 숙이고, 우리의 죄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음을 아뢰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말로 다할 수 없이 많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를 무단하게 격동시켰습니

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사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심지어 우리가 가장 깊은 심연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사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체의 정욕의 모든 공략을 성공적으로 대항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과 모든 나라들에게도 베푸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죄가 당신의 노를 격동시켰기에 무서운 황폐가 도처에 있나이다. 옛적에, 당신께서는 구원하시는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념할 만하게 입증하여 주셨나이다.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사 당신의 교회가 일어서서 참된 종교가 번영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며 영화롭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계속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비참하고 부서진 세계를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우리 구주께 주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사, 계속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계속하게 하시고, 살아 있는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 『칼빈의 미가 강해』, 서문강 역 (서울: 잠언, 1996), 416-418 에서 역자의 동의하에 발췌함.



다시 읽는 칼빈의 설교 ②

개혁신앙

(신 34:1-12, 수1:17-18)

‘모세’ 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히브리어를 좀 배웠을 건데, 이 말은 ‘건져내었다’ 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마샤’ 와 관련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모세’

란 말은 애굽어의 ‘메스’ 란 단어와 관련이 있다 하여 애굽 유래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 2:10에 갈대상자에 담겨진 채 떠내려가는 모세를 나일 강에서 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를 건진 애굽의 공주는 아마도 모세가 젖을 뿜 때까지 유모인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길러지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다시 공주에게로 돌아 왔을 때에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 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가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 애굽의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지었으므로, ‘모세’ 란 말의 애굽 유래설이 더욱 더 강하게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강한 교훈을 줍니다. 더욱이 변천기에 있고 변천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신학 훈련을 받은

모세의 성공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수종에 있었을 것으로 완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기에 회신들과 하고, 하나님의 문헌을 것은 이모수령을 완수해서 종사할 때에, 하나님 인간을 쓰시는 그 보람을 인간 자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뒤 배출되어 교회의 일을 하게 되는 신학도들에게 강한 교훈을 줍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연계가 되듯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연계성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충성스러운 봉사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기관에서 한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나 모임에 나가면 저와 같이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지냈던 대부분의 중견들이 노회장이나, 시찰 회장 또는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능률한 모습을 바라볼 때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강 예배를 맞이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많이 한 후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기는 이 장면을 바라 볼 때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34장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경이 모세 저작이라면, 신명기 34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까지를 기록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이것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리 될 일을 기록



했다는 구구과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나 그런 분이 첨부를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첨가했다고 해서 오경을 전부 기록한 모세의 저작에 대해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호렘산에서 소명을 받았고, 애굽의 열 재앙에 매개체가 되었으며, 홍해를 갈라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천추에 변함없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위시한 이스라엘 종교인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종교제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그러한 입장도 되겠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증거에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며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큰 자라고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는 옳을 의인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파님 엘 파님’, 즉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특별한 주의 종이요 위대한 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 있는 산봉우리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바라보아라. 지금 네가 호렘산에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인도하여 내었도다. 그 후에 본향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진 고락을 다 하며 수고하지 않았느냐? 너 나이 120세 인데, 지금 네가 인도한 이 백성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저 땅을 바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그 높은 산 정상에서 다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일생이 거기 그 순간에서 마치게 되는 이 장면을 바라 볼 때에, 우리는 모세의 삶이 실패인가, 모세의 삶이 미완성품인가, 왜 모세가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34장을 자세히 읽어 보면, 여기에 너무나 확실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대를 감독하고 그 무대의 연극 진행을 모두 지휘하는 사람은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장대한 구원의 행진과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팔을 들어 말씀하시고 또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육체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듯한 ‘신인동형론 (anthropomorphism)’ 과 같은 표현들이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신인동형론’이라 하며 기독교 신관에 있어서의 이방신과 유사한 사실 즉 인간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신관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는 판이하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에게 친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기로 한 땅이지만 네가 네 눈으로 보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민수기 20:12을 연상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0:12을 읽어보면 거기서 므리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



그 반석을 두 번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과는 다르게 그 반석을 내리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애석하고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실패자가 아니요, 모세의 생애는 불완전품이 아니라 성공자요 완전한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후에도 모세 전에도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귀한 칭찬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막 9:28을 보면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함께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나타났고,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거하는 모습을 예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모세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봉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단지 쓰일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순조로운 가운데 그만 두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시고자 하면, 이상하게 벌을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쓰임 받지 못하고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것을 보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저주이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출애굽 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게 기적적으로 40년

을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메추라기와 만나
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칠 족속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두 정탐꾼이 정탐한대로 가나안 땅에는
키가 크고 장대한 일곱 족속, 무술에 능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한 것과 같은 커다란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
님 편에서 생각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다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할 일
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라질 것이지만 진리는 행진합니다. “진리의
대행진을 막을 자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리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교회에서 봉사 할 때 가볍고 즐거운 마음
으로 힘차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진리운동을 함에 있어서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변과 인간의 외모나 인간의 금력이나 인맥이나 권력은 하나님을 의지
하지 않습니다. 요 2:4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인간에게 의탁치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
이다. 교회생활이나 복음전도나 진리운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지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쓰십니다. 인간을 사용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에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어디서 판단이 되며 어떻게 측



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소위 '목회의 성공이나 실패'를 운운합니다. 평생에 유수한 신문에 이름이 많이 실리고, 많은 저서를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다가, 나이 들어서 10명의 자녀들 앞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둘러보고 앉아있는 가운데 비단 요에 누워서 약시발을 들고 마시다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반드시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공과 실패는 모세가 홍해 가에서 손을 들고 그 육지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환성을 지르는 것도 아니요, 모세가 호렘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내려오는 모습도 성공의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의 성공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다는 것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임무수행을 완수해서 종사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쓰시는 그 보람을 인간 자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역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행진의 대역사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 행진의 대역사와 함께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학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애굽을 불신의 죄악의 종살이에 비유할 수 있고 홍해를 건넌 일과 광야의 생활은 중생생활의 지상교회의 신자생활에 비하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목적지 하늘나라에 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한데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꾸준히 글을 쓰는 우리 교단의 중견 목사님인 박정덕 목사님을

나는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번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박정덕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행진은 우리 구원의 행진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평신도를 위한 좋은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용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은 명령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 복종을 대단히 소중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 운동에 있어서 이 전통을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바통을 받거든, 너는 네가 새로이 받는 어떠한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지도해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이므로 하자가 별로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행동적으로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전달되었고, 이제 기록되는 말씀으로 성문화된 계시를 볼 때 모세를 통해서 기반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 토대위에서 너는 신앙 운동을 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그 전통을 무시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 해 줍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은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난잡하게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은 고려신학대학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입학할 때 우리는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학칙에 고신교단 이외



의 학생에게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허락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알미니우스(Arminius)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고, 오순절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또는 전통적인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아직 세밀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 전통적인 장로교 사상을 파악하고 좀 더 건전한 복음전파에 몸을 바쳐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학교는 교단에 속해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교단은 간관이 있는 교단입니다. 그 간관은 '고신파' 라기보다 '신앙고백' 이 있는 교단임을 말합니다. 우리 교단은 신앙고백을 지닌 신앙고백적 교회(confessional church)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seminary)도 신앙고백적 신학대학원(confessional seminary)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학교에서 제시하는 신학사상에 대하여 긍정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학위를 안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지만은 이 학교 강단에서 이 학교에 제시하는 신학사상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이 있는 학교요, 노선이 있는 학교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리는 신앙고백의 학교입니다. 물론 신앙고백이 신성불가침의 작품은 아니지요. 신앙고백이 성경자체는 아니지요. 그러나 니케아 신경에서 있는 많은 신조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신조가 더욱이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많은 이 신조들과 고백들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구구절절 성경에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9년간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교리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불 때에 구구절절이 성경과 관련된 건전한 고백입니다.

우린 교단은 장립집사 이상 권사, 장로들을 임직할 때, 그리고 목사를 임직할 때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느냐?' 를 서약으로 받습니다. 1536년 제1 헬베틱 고백서(First Helvetic Confession), 그리고 1537년 제네바 신앙고백서(Genevan Confession), 1559년 프랑스신앙고백서(Gallican Confession), 1571년 39조 신앙고백서(Thirty-Nine Articles), 1619년 작성된 도르트신경(Canons of Dordt), 그리고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가운데서 큰 과오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적용에 있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침례'가 성경적이냐 약식세례인 '뿌리기(sprinkling)'가 성경적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는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구절을 떼어 내어 적용할 때 그 구절이 어떠한 독특한 사상을 지지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지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이단이지만 여호와의 증인과 대화를 가져보십시오. 나도 종종 그들과 대화해보았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들의 입장을 지지할 만한 구절들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안식교도 성경에서 그들의 근거를 제시하는 성구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 모릅니다.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는 편협된 해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후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하며, 하나의 성경해석이 다른 부분의 성경해석에 상치되지



아니하는 해석이어야 합니다.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를 제시하는 성구가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혼연히 그리고 겸손히 성경전반을 살필 때에 칼빈주의의 '예정론' 과 '하나님의 주권사상' 이 얼마나 우리 구원에 금자탑이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삼위일체교리, 이 교리는 오늘도 영원히 빛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의 신학대학원에서 고지식하게 어떠한 패턴을 따라서 편협되고 배타적인 강의와 신학훈련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강단은 한없이 시야가 넓은 강단입니다. 모든 학설을 사로잡아서 평하고 공개하고, 그 단점과 장점을 평합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이 학교에서 제시하는 학설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입장입니다.

우린 하나의 팀입니다. 하나의 전쟁입니다. 무기로써 적을 무찌르는 이와 같은 전쟁인데, 인간이 높아진 인간사상과 불신의 세력과 모든 사이비한 이러한 설들을 쳐서 이기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하고, 영적 무기를 조성하여 양성하는 신앙의 정병들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 잡음이 있고, 혼돈이 있고, 거기에 이론과 교육의 일관성도 없고, 어떠한 신학의 정립도 없다고 한다면, 이 학교의 교육은 공중에 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완전일치가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일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원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를 지도하던 교수님은 무천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천천년주의와 세대

주의는 좀 다르지마는, 전천년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요 신앙이 대단히 보수주의자가 많다. 또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성구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성경전부를 살펴 볼 때 무천년주의가 오히려 나에게 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학설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전천년주의자들에 대해서 조금도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존경한다. 나는 다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것이고, 주님 재림해서 우리가 승천할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올라 갈 것이다. 천년동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올라갈 그때에 내가 전천년주의자들을 향해 보라! 내가 그때 그렇다고 아니 하더냐? 그렇게 내가 말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통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인격을 향상시켜서 지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훈련 도장에서, 교관들 사이에 혼돈이 있고, 중구난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기 '아멘! 아멘! 한다'면, 우리 학교 내부와 학설에 갈림길이 있어서는 건전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개혁주의의 이 모든 신경과 신앙고백서를 다 살펴보아도 제2의 축복, 중생한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그와 같은 사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이 주체(agent)가 된 그와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이 주체가 되어 세례를 준다고 하며 '성령으로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이 학교에서 붓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간판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방향이 있는 학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우리는 칼빈을 옳게 여깁니다. 물론 제네



바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석연치 아니한 일도 있긴 했지만은 그것도 구원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칼빈을 대항할만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칼빈이 다루지 아니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학교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편을 잡고 있는 교수나 학생들이 학술지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얼마든지 '누가 이런 말을 한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고 어떤 학생들은 이렇다' 와 같은 논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입장으로써 우리 학교가 40년 동안이나 가지고 나오는 이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가 내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율법을 기반으로 전통을 따라라"고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전통적인 신앙고백의 학교, 신앙고백의 교회, 이 훈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좀 부흥을 시켜보겠다고 여의도의 분을 보고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그건 다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좀 체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족대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앞서가신 성도들이 경건을 따라야 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의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면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경건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경건이 없습니다. 채플시간에 여러분들이 채플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가 강단에 서든지 매일 이 딱딱한 의자에 와서 충실히 앉아주는 내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과거 수년간 심하게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배시간에 천사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내 마음을 활짝 뒤집어 가지고 마음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어 주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이 예배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했는지 도중에 중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이 이상하게 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가슴이 뜨끈뜨끈 하다 해서 내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자기가 '작은 감람나무' 라 하면서 가슴을 한번 만져보라고 해서 손을 넣어보니까 좀 따뜻하기는 하였습니다. 당신도 성령을 받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체온과 몸 바깥 온도가 차이가 나는데 손을 넣으면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려거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회에 나올 때에는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교수회가 지정해서 맡긴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여기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수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시간 나아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경건이니 뭐니,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방학동안 깊이 생각하고 만약 이 학교가 따르는 신학사상이나 경건운동과 이 채플시간에 참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채플시간만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학교에 등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같이 1~2분 동안 소리를 모아서 방학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남아 있는 시험도 잘 치게 해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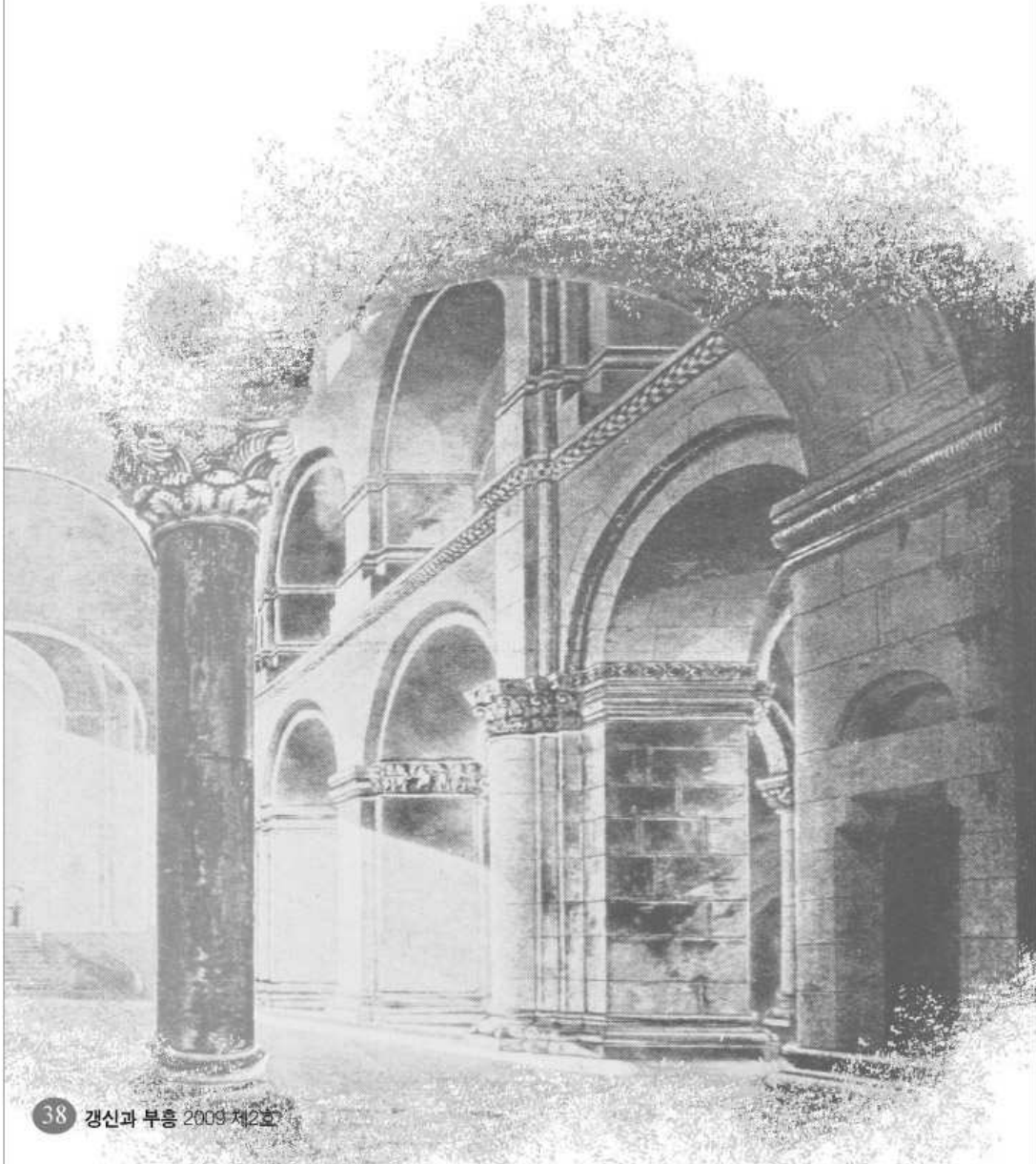
- 1987년 12월 4일 고려신학대학원 경건회에서 행한 설교임 -

개혁신학 산책 (Walking with Reformed Theology)

황대우 | 종교개혁과 부흥

이성호 | 존 오웬(John Owen)과 부흥

빌름 판 스파이커 | 마틴 부서(Martin Bucer)와 성령의 인치심





참된 부흥과 종교개혁

부흥(復興)이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남”을 의미한다. 부흥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revival”도 “산”, “살아 있는”을 의미하는 “vival”에다가 “다시”를 의미하는 “re-”의 접두어가 합성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윙키 프래트니, 『기독교 부흥운동사』, 12-22).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독교 전문 용어 가운데, 부흥이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부활(復活)”일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요,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기 때문이다.

찰스 피니(Charles Finney)도 부흥에 대해 이와 유사한 정의를 하고 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 결과(13) 죄인들에게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한 지역의 부흥은 타락했던 교회가 깨어나며, 살아나서 선포를 하며, 또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크게 각성하여 하나님의 선포에 경청하는 것이다”(찰스 피니, 『진정한 부흥』, 1993, 12-13).

하지만 필자가 부흥에 대한 피니의 정의와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피니는 부흥이란 자연의 힘을 초월한 어떤 종류의 기적과도 연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흥에는 정상적인 자연의 힘을 초월한 것이 하나도 없다. 부흥은 자연의 힘을 옳게 사용한 것에만 존재한다. 부흥은 이런 것이지 결코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피니, 10). 즉 그는 “부흥이 적절한 수단을 옳게 사용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피니의 결론은 이렇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곡물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 결과로 생긴 것처럼 부흥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피니, 11).

부흥에 대한 피니의 이러한 정의와 주장은 심각하게 성경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그에게 부흥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기술에 불과한 반면에 성경은 피니의 주장과는 달리 부흥을 인간의 뛰어난 기술과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과 거의 모든 신앙 위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부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이다.

필자는 부흥이란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교회부흥은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흥의 의미는 낯설다. 우리는 이 부흥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부흥을 “수적 증가” 즉 “외적 성장”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흥이란 일차적으로 “내적”인 것, 즉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간접적으로나 결과적으로는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닐 수 있겠지만, 다시 사는 것과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적으로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제적인 변화의 결과로서 외적 성장이 따른다면 그것은 분명 부흥의 한 단면이겠지만 실제적인 변화 없이 외적 성장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부흥과 무관한 현상일 것이다. 찰스 피니조차도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개인의 실제적이고 건강한 영적 변화보다는 전체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먼저 기대하거나, 때로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16-17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의 열기가 식은 후에, 침체된 교회의 영적 갱

신을 주도한 것이 18세기의 부흥운동이다. 여기서 부흥을 좀 더 쉬운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변화”일 것이다. 부흥은 분명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흥이 가져오는 결과 역시 일종의 변화일 것이다. “부흥이 이 땅에서 가져오는 장대한 결과는 ‘세상의 도덕적인 상태를 철저히 쇄신시킨다’는 것입니다”(W. B. 스프레이그, 『참된 영적 부흥』, 1984, 253).

종교개혁은 16세기의 일이고 부흥운동은 16세기 후반을 지나 17세기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 이후, 즉 18세기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실로 16세기 이전의 부흥을 논하자면 흔히 문예부흥이라고 일컫는 르네상스(Renaissance)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르네상스 역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18세기의 “부흥”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르네상스라는 말 앞에는 항상 수식어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예”라는 단어이다. 르네상스가 문예와 깊은 연관을 가진 것이라면 부흥은 신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부흥은 르네상스보다는 오히려 종교개혁에 훨씬 가까운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물론 16세기의 종교개혁시대에는 18-19세기에 상용화된 “부흥”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고 요구한 것은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세기의 개혁은 18-19세기의 부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8-19세기에 영어권에서 부흥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여럿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사용된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도 “awakening”과 “revival”일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의 “awakening”이란 단어가 아마도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현대적 용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잠에서 깨어야 한다’, ‘근신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등의 문장은 신약, 특히 바울 서신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문장들이다. 이러한 성경적 사상이 18-19세기 부흥의 기초라고 한다면 16세기의 종교개혁 역시 결코 이 부흥과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만 아니라 당시 사회 전체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18-19세기의 부흥보다 훨씬 광범위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부흥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revival”의 어근에 해당하는 라틴어 단어를 단 한 번 사용했는데, 그것은 3권 20장 23절에 나타난다. 여기서 칼빈은 에스겔 14장 14절을 해석하기 위해 그 단어를 “다시 살아나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 라틴어 단어는 “reviviscere”



(=revivisco)라는 동사이다. 이 단어는 “다시 살아나다”를 의미하는 “revivere”(=revivo)라는 동사에 “~하기 시작하다”를 의미하는 “-sc-”가 삽입된 동사로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다”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두 동사 “reviviscere”와 “revivere”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둘 다 “다시 살아나다”, “소생하다”, “활기를 되찾다”, “부흥하다” 등을 의미한다.

칼빈 역시 16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신

학과 사상 속에서 18-19세기에 유행한 부흥이란 단어를 적용하기에는 어색함이 없지 않다. 하지만 칼빈뿐만 아니라 16세기의 모든 개혁가들이 만약 18-19세기에 살았더라면 그 당시의 부흥에 결코 무관심하였을 사람들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부흥을 개혁이라는 용어로 이해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본다면, 18-19세기의 부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6세기 종교개혁을 18-19세기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면 단연 “각성”(awakening)일 것이다. 각성은 회개를 동반한다. 각성과 회심을 통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 18-19세기 부흥운동의 공식일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각성과 회심은 일어났다. 우리는 칼빈의 “갑작스러운 회심”(conversio subita) 이야기를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서 만날 수 있다. 여기서 “conversio”(콘베르시오)라는 라틴어 명사는 “똥, 회전, 바뀔, 전환, 변화” 등을 의미하는 “versio”라는 단어에 “함께 혹은 철저히”를 의미하는 접두어 “con-”이 결합된 단어로써 “철저하게 바뀔, 완벽한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subita”란 단어는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즉흥적인” 등을 의미하는 형용사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3장 5절에서 “회개”(poenitentia)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돌이킴”(tota ad Deum conversio)으로 이해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는 울부짖는 한 순간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참된 돌이킴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인데, 돌이킴이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하고도 진지한 두려움에 의해 달



성되는 것이요, 우리 육신과 옛 사람을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독교 강요〉 III.3.5)

칼빈이 〈시편 주석〉 서문에서 말한 자신의 갑작스러운 회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이 회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한 순간에 일어난 급격한 신앙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든, 회심에 대한 칼빈 자신의 견해를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회개에 대한 칼빈의 공식은 회개가 곧 “돌이킴”(conversio)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식은 칼빈이 만들고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게로 돌아오라!”(사 44:22; 렘 3:12, 14, 22, 4:1; 욥 2:12; 슥 1:3-4)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식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사 55:7; 호 14:1)고 외친 선지자들의 공식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느 시대이건 자신에게서 떠난 자들을 찾으신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말 3:7)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애 5:21)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발생하고 진행된다. 그리고 그 돌이킴의 내용은 옛 자아를 죽이는 것과 동시에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즉 돌이킴이란 죽임(mortificatio)의 사건인 동시에 살림(vivificatio)의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루터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죄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십자가 사건을 거룩한 교환이라 불렀다.

성격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종교개혁은 분명 18-19세기의 부흥 사건들과 차이가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대적 환경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신앙의 자유가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영주나 시의회에 속한 일이었다. 하지만 개인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종교개혁 시대이다. 즉 이 시대부터 개인이 사회 전체에 속한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범한 개인의 신앙적 자유가 18-19세기만큼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심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대단한 주목을 받은 것은 아마도 노예해방운동을 전후한 19세기일 것이다. 18세기에 가장 주목받던 역사적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인권”일 것이다. 16세기 이후 꾸준히 성장해오던 개인에 대한 존중심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질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그 결과 노예해방운동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를 “계몽”(the Enlightenment)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시대부터 신 중심적(God-centered) 세계관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성이 역사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중심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성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교회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유럽 역사 가운데 이성이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 독립적인 역할을 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회의를 품고 신앙의 자리에서 급격하게 이탈하기 시작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합리성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시대가 18세기였다. 이 시대의 신학자들과 신앙적인 철학자들은 이성과 부합되지 않는 신앙적 요소, 즉 종교의 비합리적 요소들이 무시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16세기 종교개혁과는 달리 18-19세기 부흥운동은 교회의 신앙이 합리적 이성 과 사투를 벌이던 시대의 산물이다. 16세기 서구 사회는 이성보다는 신앙이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18-19세기 서구 사회는 신앙보다는 이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즉 16세기는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의 주장, “이해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믿으라!” (crede, ut intelligas!)과 중세 신학자 안셀름 (Anselm of Canterbury)이 내세운 유명한 문구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 (Credo ut intelligam),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fides quaerens intellectum)이 지배하는 시대였지만 18-19세기는 오히려 “믿기 위해 먼저 이해 하는 것”(intelligere ut credere)이 요구되는 시대였다.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16세기는 신앙이 지배하는 시대였던 반면에 18-19세기는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이었다. 18세기의 대표적 개신교 신학자 조나단 에드 워즈(Jonathan Edwards)도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 18세기 에드워즈는 분명히 16 세기 칼빈과는 다른 시대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에 대해 자신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예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에드워즈의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영 의 사역을 구분하는 표지들”(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에서 하나님의 뛰어난 은혜인 열심(zeal)이 때론 교만과 인간적인 열정과 혼합되기 쉽기 때문에 때론 도에 지나친 엄격함으로 비상식적인 일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는데, 종교개혁가들의 열심도 결코 예외가 아니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칼빈이 그런 일을 저지른 대표자인 것처럼 지적한다.

“그와 같이 종교개혁 시대의 저 영광스러운 종교 부흥에서도 열심은 많은 경우에 매우 부당한 엄격함으로 나타났고, 어느 정도의 박해로도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가장 뛰어난 몇몇 종교개혁가들에게서도 나타났으며, 특별히 위대한 칼빈에게서도 그렇다. 또한 활력 넘치는 종교가 꽃을 피운 그 시대에는 신성에 대한 견해가 몇 가지 점에서 달랐던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죄가 난무했다”(『조나단 에드워즈 전집 제7권. 부흥론』, 2005, 315).

18세기 이성의 시대를 산 에드워즈의 눈에는 16세기 신앙의 시대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그 신앙적 열심을 과도하게 발휘한 것으로 보였다. “열심”에 대한 에드워즈의 판단에는 신앙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그의 노력이 돋보이는데, 이것은 그가 18세기의 인물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성이 지배하는 18세기의 시각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을 보면 종교개혁가들의 열심은 편협하고 지나치며 균형을 상실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16세기의 시대 정신을 충분히 고려한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16세기 사회는 신앙이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믿었던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신에 대한 다른 견해는 곧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만일 에드워즈가 이런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라면 아마도 칼빈을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가들을 자신



의 시대정신에 투영하여 평가하는 우(愚)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드워즈는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신학자로서 감정 (affection)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었다. 그는 신앙적 감정이야말로 무 미건조한 이성의 철용성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에드워즈는 자신의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균형 잡힌 합리적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결코 이성이 제공할 수 없으며 종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을 것이다. 에드워즈의 신학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태동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16세기의 칼빈과 18세기의 에드워즈가 지닌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신학자 모두 “종교”(religion)란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Christianity), “기독교 신앙”(Christian faith), “기독교 경건”(Christian piety)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이런 의미에서 에드워즈가 사용한 “종교 부흥”이라는 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기독교 부흥”, “신앙 부흥”, 또는 “경건 부흥”이 될 것이다.

에드워즈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영광스러운 종교 부흥”(glorious revival of religion)으로,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를 “활력 넘치는 종교의 만개 시대”(days of flourishing of vital religion)로 정의한다. 즉 그는 종교개혁을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로 평가한다. 이런 에드워즈의 시각으로 본다면 18세기의 부흥과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결코 다른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부흥의 역사이다. 18세기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논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에드워즈의 시각은 굉장히 중요하다.

에드워즈의 표현대로 종교개혁은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이다. 이러한 부흥

은 결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18세기 에드워즈의 부흥 논리는 19세기 피니의 부흥 논리와는 다르다. 이것을 단순 비교한다면 18세기 부흥과 19세기 부흥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에드워즈가 본 18세기의 부흥은 근본적으로 19세기의 부흥보다는 오히려 16세기의 종교개혁과 동질의 사건이다. 16세기 종교개혁과 18세기 부흥의 공통점은 양자가 동일하게 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부흥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우리 인간은 그 현상의 결과만 경험할 뿐이다.

하지만 19세기 피니 식의 부흥은 분명 이와 다른 성질의 것이다. 피니에 의하면 부흥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이고 인간이 준비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계획된 일의 철저하게 수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일 뿐이다. 마치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씨를 뿌리고 가꾸느냐에 따라 그 수확물이 달라지듯이 부흥의 역사 역시 사람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피니는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에드워즈의 논리와 확실히 다르다 (이안 머리, 『성경적 부흥관 바로 세우기』, 2005). 이안 머리의 이 책은 피니의 부흥 논리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고 지적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만연한 단어 “전도”는 오직 하나의 목표, 즉 부흥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혹자는 이 부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부흥하기 위해, 즉 교회 성장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전도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부흥을 통해, 교회 성장을 통해 확장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쳐야 한다. 이러한 교회성장 논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수적 성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공식은 성경 어느 구절에 근거한 것인가?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칼빈과 에드워즈를 내세우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찰스 피니의 부흥 논리로 실리를 채우고 있다. 피니 식의 부흥 논리가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 초대 교회의 부흥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의미까지도 왜곡하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도는 결코 부흥을 위한 수단 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도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 구원의 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전도를 통해 교회가 부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교회의 부요는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21세기인 지금도 한국교회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는 구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직도 19세기 피니 식의 부흥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19세기 부흥과 피니의 부흥 논리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필자가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단순 비교를 통해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자 할 경우 18세기의 부흥과 19세기의 부흥을 극단적으로 대조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의 부흥은 19세기의 부흥보다는 오히려 16세기의 종교개혁에 더 가깝다. 18세기부흥 사건과 16세기 종교개혁의 주체는 모두 하나님이신 반면에 19세기 피니 식 부흥운동의 주체는 인간이다. 이 둘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이 교회 현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다.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독교는 분명 가시적 현상의 종교가 아니다. 성경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가시적 현상, 즉 결과만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이러한 태도가 소수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처럼 인간적인 욕심이 잉태한 결과

물이라면 분명 한국 교회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대가를 이미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글은 결코 19세기 부흥운동을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다만 피니 식의 부흥 논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전 교회 역사 속의 건전한 부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와는 대조적으로 18세기의 부흥운동과 16세기의 종교개혁운동이 동질의 역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역사이다. 어디 부흥뿐이겠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일이 그와 같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8) 이것이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자세이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즉 가시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고의 기독교 윤리 즉 겸손의 철학이 숨겨 있다. 진정한 부흥은 어느 시대이건 신앙적 겸손과 용기가 함께 만나는 장소에서만 일어난다. 또한 그 두 은사를 함께 소유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18세기 에드워즈가 그러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겸손과 용기를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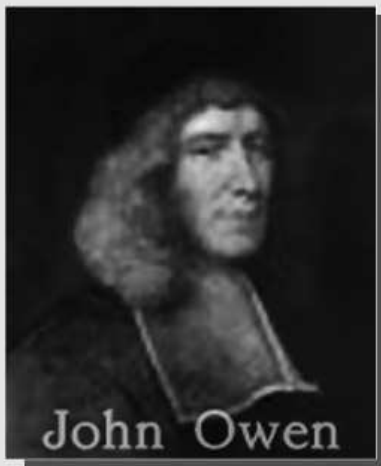


존 오웬(John Owen)과 부흥

부흥과 관련하여 존 오웬(1616-1683)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흥이 영국에서 발생하였던 웨슬리의 부흥운동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the Great Awakening)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오웬을 언급하면서 부흥을 같이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오웬은 그런 운동이 발생하였던 시기보다 한 세기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흥운동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은 그야말로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격변의 시기였고, 그 속에서 18세기, 19세기 식의 부흥운동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운동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기가 '부흥' 혹은

'부흥운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흥운동의 관점에서 오웬을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웬 역시 시대의 아들이었고, 따라서 그 시대의 맥락에서 오웬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흥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하박국 3:2에서 말하는 부흥으로 생각한다면 (이 구절은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알려진





존 오웬(John Owen)과 부흥

부흥과 관련하여 존 오웬(1616-1683)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흥이 영국에서 발생하였던 웨슬리의 부흥운동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the Great Awakening)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오웬을 언급하면서 부흥을 같이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오웬은 그런 운동이 발생하였던 시기보다 한 세기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흥운동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은 그야말로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격변의 시기였고, 그 속에서 18세기, 19세기 식의 부흥운동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운동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기가 '부흥' 혹은

'부흥운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흥운동의 관점에서 오웬을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웬 역시 시대의 아들이었고, 따라서 그 시대의 맥락에서 오웬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흥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하박국 3:2에서 말하는 부흥으로 생각한다면 (이 구절은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알려진



교회회는 회원을 발붙이는데 있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켰고, 이미 발붙인 회원에게 대해서도 엄격한 권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가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산 들(방언)이 아니며, 이산들은 주생한 신자들이다. 이러한 신들로 구성될 때, 교회는 풍성하게, 그리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오웬의 강한 확신이었다.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너무 피상적이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부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흥회식의 부흥이 아니라 “주의 일”의 부흥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을 간구하기 전에 주의 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구절을 구호로 내 세울 때는 “주의 일”이라는 핵심적인 단어를 빼어 버린다. 한국교회는 부흥만 있지, 부흥의 내용은 없거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부흥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앞 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하셨던 일, 즉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한 번 더 일으키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지와 죄로 인해 거대한 이방 제국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것이 부흥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부흥을 이야기한다면, 존 오웬이야말로 참다운 부흥 운동가였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고통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국가라는 거대한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교회(National church)의 역사적 배경

부흥에 대한 존 오웬의 견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해 있던 영국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존 오웬은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이었고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회원이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이런 관습적 전통이 거룩한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점차적으로 생겨났다. 한 세기 전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경우 교회가 많은 점에서 새롭게 되었지만 국가교회(national church)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도전 받지 않았다. 즉,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교회의 회원과 국가의 회원은 거의 동일하였다. 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회원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연히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인간들의 사교단체가 되어버렸다.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가와 교회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것뿐이었다고 믿었다. 그러기 위한 실제적인 유일한 방법은 유아세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다. 교회의 회원과 국가의 회원이 일치하는 한, 교회에 대한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물론, 신학자들이 이론적으로는 국가와 교회가 구분시켰지만, 그 회원들이 구분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사변적 구분은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 결과 재세례파들은 교회의 회원을 오직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스스로의 고백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원을 계속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에 많은 힘을 쏟았다. 당연히 말씀의 선포나 성례보다는 권징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재세례파를 제외한 종교개혁가들도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은 교회의 구성원이 도덕적으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리가 개혁되는 것이었다. 교회가 당면한 급선무는 타락한 로마교회의 거짓 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따라 올바른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었다. 만약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꾸준히, 올바르게 그리고 신신하게 선포한다면, 비록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거룩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회의 거룩성이 교회의 회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과 그에 따른 성례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혁과 신학자나 교회들이 신자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종교개혁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마 가톨릭보다 도덕적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칼빈의 경우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보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종교개혁 당시 최고의 신학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피터 마티 버미글리(Peter Martyr Vermigli)와 같은 이들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 중 하나라고 보았고, 이와 같은 생각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반영되었다. 요약하면, 개혁과 신학에 있어서 권징에 대한 완벽한 합의는 없었고, 또 권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권징이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 개혁과 신학에서 권징은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 3대 표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영국혁명 때까지 국가교회 개념은 루터파는 말할 것도 없고 개혁과 신학 안에서 큰 도전을 받지 않았다. 로마교라는 거대한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참다운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군대 힘을 지휘할 수 있는 경건한 위정자들이었다. 이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모두가 경건한 위정자들을 복음으로 설득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심지어 루터보다 교회와 국가의 구분을 어느 정도 강조한 칼빈조차도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개신교를 박해하는 프랑스 왕에게 헌사하였다. 반면, 위정자들의 힘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오직 말씀에만 의존하려고 하였던 재세례파들은 교황뿐만이 아니라 세속군주에게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개혁과 교회들은 세속 군주의 도움으로 교리적인 순수함을 지킬 수는 있었지만, 일단 교회가 세속 군주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자 교회는 국가의 눈치를 크게 살필 수밖에 없었다. 세속 군주가 경건한 군주일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후계자들이 항상 경건하게 될 보장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세속군주의 최우선 관심은 교회의 순수성 보다는 국가와 교회의 안정과 평화이었다. 그들이 원했던 교회는 단일한 교리와, 단일한 교회 정치와, 단일한 예배 형식 속에서 단일화된 교회이었다. 한 국가에서 국가의 인정을 받는 하나 이상의 종교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국가는 분쟁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세속군주들은 생각하였다. 당연히 이 교회의 기본 방침을 문제 삼거나 도전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나게 되었고, 이들은 세속 군주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다.

영국교회와 청교도

오웬이 속한 영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국가교회였다. 대륙과 달리 영국의 종교개혁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선도한 것이 아니라, 좀 어처구니 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욕심(자신의 원래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을 이루기 위한 국왕 헨리(Henry) 8세에 의해서 직접 추진되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이혼을 반대하는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스스로 영국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이 교회는 헨리의 아들 에드워드(Edward)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보다 철저한 개혁적인 교회를 지향하였지만, 그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Mary) 여왕에 의해서 개혁운동은 잠시 좌절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녀 이후에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Elizabeth)가 장기간 통치하면서 영국은 완전한 개신교 국가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왕의 통치 하에 국가교회가 정립되었는데, 교리에

있어서는 〈39개조 신조(Thirty-Nine Articles)〉, 교회정치에 있어서는 주교제, 예배에 있어서는 〈공동 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 말씀선포에 있어서는 〈설교집(Book of Homilies)〉이 4개의 기둥이 되어 굳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교회에 있어서의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형식을 대단히 강조하였다. 비록 그런 형식들이 로마교의 잔재를 많이 제거하기는 하였고 따라서 반(反)성경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근거한 형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非)성경적인 형식도 많았다. 문제는 그러한 형식들이 모든 교회의 회원 특히 목사들에게 강제되었고, 이런 형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교권적 탄압이 시행되었다. 이런 종교적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주의가 교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종교적 형식주의를 거부하고 진정으로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부흥을 꿈꾸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점을 보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기존의 형식을 그대로 두고 성도들의 경건생활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만족하였다. 이들은 영국 교회 안에 남아서 개혁운동을 주도하였다. 어떤 이들은 교회 정치체제와 예배 의식을 보다 성경적으로 개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국교회와 별도로 교회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이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이들이 회중교회파(congregationalists)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이었다. 비록 신학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칼빈주의 신학을 고수하였지만,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지교회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오웬은 바로 이 회중교회파가 배출한 칼빈 이후 가장 뛰어난 개혁파 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오웬과 교회재건

오웬의 아버지는 국가교회를 거부한 비국교도에 속한 목사였고, 이 비국교도 전통 속에서 자랐다. 그는 영국교회의 형식주의를 거부하고 교회를 초대교회의 모습에 따라 재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영국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는 제대로 세웠으나 그 위에 건물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오웬은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이미 놓인 굳건한 기초위에 튼튼한 건물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오웬에게 있어서, 영국교회는 로마교회로부터 해방을 했으나, 로마교회적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마치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다. 교회는 교리적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단지 로마교회라는 이름이 영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오직 고위 성직자들만이 로마교회로부터의 해방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물론, 교회 예배에서 미시는 사라졌고 일반 성도들은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만, 회원들의 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성도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재세례파는 세속국가와 완전히 단절하고 유아세례를 폐지하여 참다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하였다. 물론 이런 방법은 개혁신학에 굳건히 서 있던 오웬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웬은 그들이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다. 문제는 개혁신학, 특히 유아세례의 근거가 되는 언약신학을 끌어안고서 어떻게 바른 교회를 정립할 것인가 이었다.

신약 성경에 교회는 집에 비유되곤 하였다. 집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굳건한 기초가 있어야 하고 튼튼한 벽돌이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오웬은 이 성경적 비유를 교회 재건에 적용하였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하고, 튼튼한 교회의 구성원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 회원

들이 서로 단단하게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이미 종교개혁을 통하여 확고하게 놓여 졌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튼튼한 돌과 돌 사이의 굳건한 연합이었다.

산 돌: 중생한 자들

오웬은 교회가 부실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를 이루는 회원들 중에 부실한 돌, 죽은 돌이 구석구석에 끼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오직 제대로 된 돌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영국 교회 안에는, 신실한 신자들도 많았지만 이မ်뿐인 신자들도 많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사실상 거의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비록 영국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올바르게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회원이 부실한 이상 제대로 된 튼튼한 교회가 될 수는 없다고 오웬은 보았다. 교회의 표지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였다.

오웬은 교회 회원들을 오직 중생한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오웬은 이러한 중생의 강한 체험을 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웬은 중생과 세례를 동일시 여기는 로마교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그 둘의 구분을 강조하였다. 세례는 표지이고 중생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로 분명히 말씀하였듯이,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자가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오웬은 거듭해서 강조한다.

물론 누가 중생하였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만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나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 비록 인간이 중생 그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중생의 결과인 그 열매는 알 수 있으

며, 교회의 치리기관은 그 열매를 가지고 의미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정말로 신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생활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그를 중생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웬은 적어도 회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오웬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비판자들에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축소시킨다고 비난을 들어야 했다. 오웬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교회 속에 있는 회원들 중 상당 수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안에 있는 교인조차 밖으로 내 모는 것이 교회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오웬은 초대교회를 예로 들면서 강하게 반박하였다. 초대교회는 회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켰고, 이미 받아들인 회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권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신자들이 모이는가이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산 돌(벧전 2: 5)이며, 이 산 돌은 중생한 신자들이다. 이러한 사자들로 구성될 때, 교회는 올바르게, 그리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오웬의 강한 확신이었다.

교회언약(church covenant): 성도간의 굳건한 연합

제대로 된 돌이 단지 모여 있기만 해서 집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중생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벽돌이 시멘트를 통해서 서로 굳게 붙어있어야 건물이 되듯이, 교회도 산 돌인 중생한 신자들이 서로 굳게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 회원들인 이 돌들 사이의 연합을 교회언약(church covenant)라고 부른다. 보편적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으로 모든 회원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지역교회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로 결

합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 언약은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중생한 신자에게 회원 간의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문서이다.

이 결합의 특성은 자발성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립되는 것이다. 만약 언약에 자발성이 빠진다면, 그 언약은 언약이 아니라 강요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그 공동체의 결속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가 원해서 가입되지 않은 단체를 위하여 진정한 충성심이 생길 수 없다. 이 언약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회는, 성공회나 장로회같이 위에서부터(예를 들면 주교나 노회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즉 신자 회원들의 언약에 근거하여 세워진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세우는 것이다. 이전에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면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제는 그 반대로 세례만 받은 신자가 성경을 읽고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신자들끼리 모여서 상호간의 언약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언약은 개 교회(congregation)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 점에서 지역교회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이전에는 지역교회라고 하면 보편교회(universal church)에 반대되는 말로 특정교회(particular church)라고 불렀다. 그 특정교회는 주교가 다스리는 일정한 교회들의 모임인 주교좌 교회(Diocese)나 혹은 장로교의 경우 지역교회들의 모임인 노회를 지칭하였다. 따라서 개 교회는 주교좌 교회나 노회의 한 부분일 뿐 온전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 언약으로 이루어진 지역교회야 말로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 이상의 권위가 있을 수 없는 독립된 교회였다.

오웬이 교회를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교회 위의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가 직접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 세운, 비성경적 제도인 주교나 노회가 참견하여 통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인위적으로 교회의 구역을 만들고,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역에 위치한 교회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교구제도(parish system)야 말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적이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1000년 이상 영국에서 유지된 이 제도는 교회언약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오웬은 초대교회의 예를 또 언급한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였다. 국가가 교구라는 구획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성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회원이 되었다. 오웬은 이런 초대교회가 가진 자발성의 원리가 실천되어야 참된 교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웬은 국가에 의해서 종교가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무조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모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웬은 국교도나 장로교인들과는 달리 양심의 자유와 제한적 의미에서 종교적 관용(toleration)을 주장하였다.

마무리와 비평

1650년대는 영국 혁명이 발생하여 왕이 죽고 국교가 폐지되어 쥘트리 계급을 중심으로 한 신흥 세력들이 청교도들의 지원을 업고 정권을 잡았다. 왕이 죽고 나서, 군대를 지휘하였던 올리버 크롬웰이 국정 최고 수반의 자리에 올랐다. 오웬은 크롬웰의 신망을 받아 종교에 관한 한 최고의 고위 공직자 자리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영국의 종교 정책을 추진하였고,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을 맡아 미래의 주역들을 교육시켰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자신이 구상한 대로 교회가 재건되기를 기대하였다.

아마도 모든 청교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추진하였으면 오늘날 영국교회는 많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크롬

웰이 정권을 잡을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지 성공적이지도 못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후계자가 될 아들은 국정을 이끌기에 무능력하였다. 결국 대륙에서 피난하였던 왕은 1660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고, 새 왕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 시켰다. 오웬이 추구했던 교회의 중건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오웬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가적인 규모에서 교회를 중건하는 것은 실패하였지만 시골 작은 마을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경적/초대교회적 이상을 따라 세우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여러 책들, 특히 방대한 히브리서를 주석하였는데, 이런 훌륭하고 탁월한 저술들은 이후 세대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고 교회의 개혁, 부흥, 중건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신학적 원천이 되었다.

오웬의 꿈은 그가 살았던 시대 속에서 잉태한 산물이다. 그 자신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아무리 옳은 신학적 견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오용할 수 있다. 그는 영국의 모든 교회를 칼빈주의 신학과 연합된 회중주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회중주의는 개교회 중심주의를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좌경화된 신학을 양산하는 중심이 되었다.





● **개혁신학 양서연재 2**

성령의 인치심

이 글은 화란 아플도른 신학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수인 Willem van't Spijker (1926-) 박사의 De verzegeling met de Heilige Geest (Kampen: De Groot Goudriaan, 1991) 라는 단행본의 pp. 51-58을 번역한 것이다.

판 스파이커교수는 1971년 화란자유대학교에서 '마틴 부서의 직분론' (De ambten bij Martin Bucer)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졸업논문은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은 최우수 성적(magna cum laude)을 받았다. 그는 유타레흐트 (Utrecht) 지역의 화란기독교개혁교회 (Christelijk Gereformeerde Kerken, CGK)에서 다년간 목회 후 1972년부터 교단 신학대학인 아플도른 신학대학 (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CGK in Apeldoorn)의 교회사 교수로 25년 간 봉직한 후 1997년에 은퇴하였다. 칼빈과 부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서 연구와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의 교회론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학자이다. 현재 활동 중인 그의 제자들로는 아플도른의 Herman Selderhuis 교수, 장신대의 최윤배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Ecclesiastical Offi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E. J. Brill)>, <Calvin: Die Kirche in ihr Geschichte (V & R)>, <Luther en Calvin>, <Luther: Belofte en ervaring>, <Reformatie en geschiedenis>, <Triptiek van de geschiedenis>, <Geest, woord en kerk>, <Gemeenschap met Christus> 등이 있다. 저자의 동의를 받아 본서를 계속해서 번역 연재할 예정이며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들을 함께 번역 소개할 계획이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속한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약속한다. 그는 말씀에 스스로를 연결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우리를 스스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성령이 인사의 빛을 재민을 위해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해방을 위한 주역과 해방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생에 대한 희망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II. 마틴 부서(Martin Bucer)와 성령의 인치심

개혁주의 전통의 종교개혁은 성령과 그의 사역에 관하여 루터관과는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루터는 열광주의자들(the Spiritualists: (역주) 하나님께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체험을 중요시하는 종교개혁의 한 분파)을 몹시 싫어하였다. 루터가 겪었던 몇몇 대표적 열광주의자들과의 경험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실이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루터는 성령과 그의 사역에 관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입장에 놓여 있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남부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경우 이 문제는 달랐다. 그들은 신학의 다



양한 측면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과 신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그들은 '칭의' 만을 논한 것이 아니라 '성화'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마틴 부서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리고 우리는 부서의 견해를 앞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그가 실제로 이 본문을 설명하는 〈에베소서 주석〉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여기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1527년에 발행된 에베소서 에 관한 그의 소책자이다. 여기서 부서는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 지어 논의하고 있다. 이 사실은 실제로 놀랄만한 독특함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체험의 전부를 제공하는 일반적이며 종교적인 영이 아니다. 그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redemption), 즉 화해(reconciliation)를 실현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선물하심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 분이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베푸실 때 이것은 시작되는데 이 영은 우리를 다시 불러내어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이는 투쟁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는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능력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은 확실한 보장, 인증으로,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유에 대한 기쁨 부으심과 보증금으로 불린다. 최후의 날에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택함 받은 자들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변화될 때, 그들은 먼저 이 영을 받게 된다.”

부서가 성령을 단순히 우리를 영원한 복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자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에게 구속은 믿는 자들이 여기에서 시작하여 곧 마지막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 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특별히 우리가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도록 만든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영생에 대하여 명상하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이를 희망과 확신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을 확증시킨다.

믿음의 삶은 성령이 먼저 충동을 제공하는 삶이 아니다. 또한 이는 첨가의 방식으로 성령이 언급되는 삶도 아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구속의 모든 측면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 가운데 거하는 삶과 확실한 미래를 지향하는 영적 삶을 뜻한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불멸'에 관하여 명상하도록 만드는 데, 이는 그가 우리의 마음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함으로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이 크리스찬을 나태하거나 냉담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웃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며 삶의 성화를 강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부서에게 구속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삶이 된다. 또한 이는 미래 지향적인 삶이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것에 관해 명상하도록 이끈다. 이를 통하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발견하는 의를 위해 노력하도록 만든다.

부서는 성령을 '선택함을 받은 자의 보증'이라고 부른다. 에베소서 1:13,14에 대한 주석에서 부서의 본문 해석에 있어서 독특한 몇 가지 견해를 발견한다. 여기에서 부서의 주석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 "복음에 그들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확증시킨 동일한 성령이 '보증'(sphragis)인데 이를 통해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하

나님의 자녀로 인식되도록 만든다. 성령은 그들의 영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인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심어준다(롬 8장).”

성령은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열매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심겨졌다는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한 그릇으로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성령은 또한 우리의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불린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복된 삶을 약속하는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된다는 것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아들의 형상으로 재창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과 함께 선물로 부여받았다. 성령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유업과 구속에 대한 확신을 누리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성령의 소유로 인해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옛 언약의 시대에 이미 경건한 자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새 언약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성령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사역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사람들은 이 사역에 의해 구원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지만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이 성령이 없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수 없으며 육신의 욕심을 따른다. 이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으며 그의 의지에 복속된다. “이에 반해 성도들은 성령의 주장함을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육체와 사탄과 항상 투쟁한다. 비록 이들이 종종 넘어지지만, 죄에 대해 거리를 두고 의심할 수 없는 희망에 의해 고무되며 죄와 죽음의 육신에서 단번에 해방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설교를 통해 약속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서가 믿음의 의미에 대해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된다. 흔히 인정되는 것처럼 외적인 것에 의해서만 아니라 성경에 표현된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아니한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비롯된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양육되고 증대된다. 아무도 성경이 멸시당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경건함에 있어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한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속한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는 말씀에 스스로를 연결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우리를 스스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이를 통해 성령이 인치심의 빛을 자신만을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생에 대한 희망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부서는 자신의 에베소서의 제일 첫 주석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누리게 되는 도구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이 가시화되는 특징으로 묘사한다. 구원의 확신과 윤리적 성격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부서에 의해 요약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부서에게 구원의 이 두 가지 요소, 즉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가시성(visibility)이 어떻게 일치될 이루는가를 살펴보았다. 그에게 성령의 인치심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스스로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개혁의 주제와 일치하는 것이다. 로마교는 단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상의 경우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완전한 확신은 거의 획득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가 건짐을 받게 될 것을 안다고 할 때 이는 특별 계시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은 오로지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만을 내세웠는데 그 이유는 이신칭의를 통해 확신이 주어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구원은 분별되어진다.

그러나 이는 인식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에 드러난 것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갱신한다. 삶의 이러한 새로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선행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루터는 이러한 진리가 불경건한 자들의 칭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부서는 이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빛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는 성령의 사역이 지닌 찬란한 빛을 보여준다. 그래서 부서는 성령의 인치심에 놓여있는 구원의 두 가지 요소를 내세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인치시고 그들이 자기 소유임을 보여주신다. 이제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 또한 그들에게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부서가 1550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Cambridge)에서 행한 강의에 나타난 성령의 인치심을 주장하는 본문에 대한 그의 번역이다. 그는 성령의 인치심을 복음과 연결시킨다. 복음에 의해 우리는 믿음을 지니게 된다. 영



원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신이 믿은 후에 당신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더불어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마찬가지로 인치심은 우리에게 중재된다. 복음을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공하시며 우리에게 그를 알려 주신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다. 그는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만든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믿음, 즉 조작된 믿음과 구별되는 참된 믿음에 의해 일어난다. 여기에서 그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확신이며 참으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그 선하심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활발하게 만들므로 이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의 표현이 더욱 명확한 방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부서의 의도는 분명하다. 그는 아래에 주어진 것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다: 성경, 성령, 복음, 믿음, 살리심에 의한 갱신과 새로운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치심’에 의해 하나로 묶여진다. “우리는 신적 능력에 의해 중생을 받고 하늘의 빛에 의해 차고 넘치게 되므로 우리의 성화와 내적 변화는 성령에 위탁되었다. 그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심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위격의 구분에 관하여 성경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지닌 통일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성령의

특별한 사역에 관한 이해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부서의 의도이다.

왜 성령이 약속의 영이라고 불리워지는가? “왜냐하면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들이 주어지지 않지만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믿음과 중생의 은혜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거룩함과 영생을 향한 인치심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부어지고 주어졌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들의 육신보다 강하시다. 그는 육신의 열망과 정력을 제거하신다.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정욕을 죽이고 억제하신다. 그러나 아직 그가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서 시작된 구속의 인과 보증으로 불린다. 이는 아직 구입대금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고도 아직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일부만 지불하고 그 구입을 확정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에 비유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둬나게 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되 우리를 여기에 육체에 머무르게 하실 정도로 진실로 그렇게 하신다. 그렇지만 우리를 믿고 사랑하게 만드는 이 새로움의 인증을 받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미래에 주어질 우리의 완전함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 성령에 의해 지금 우리는 이미 불경건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로부터 분별된 사실이 드러난다. 성령은 우리가 죽기까지 투쟁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신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러한 능력을 선물로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나니...”라고 증거한다. 성령은 보증이시다. 마치 보증금이 물건구매에 신뢰심을 부여하고 이를 확증하듯이 성령은 우리 믿음에 영생을 봉합하시며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킨다. 부서에 게 인치심, 기름 부으심, 보증에 대한 이 비유는 참된 것으로 지속된다. 이 모든 개념들은 한번 오시지만 지금 이미 양쪽을 향해 사역하시는 성령의 완전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확신을 지니게 되며 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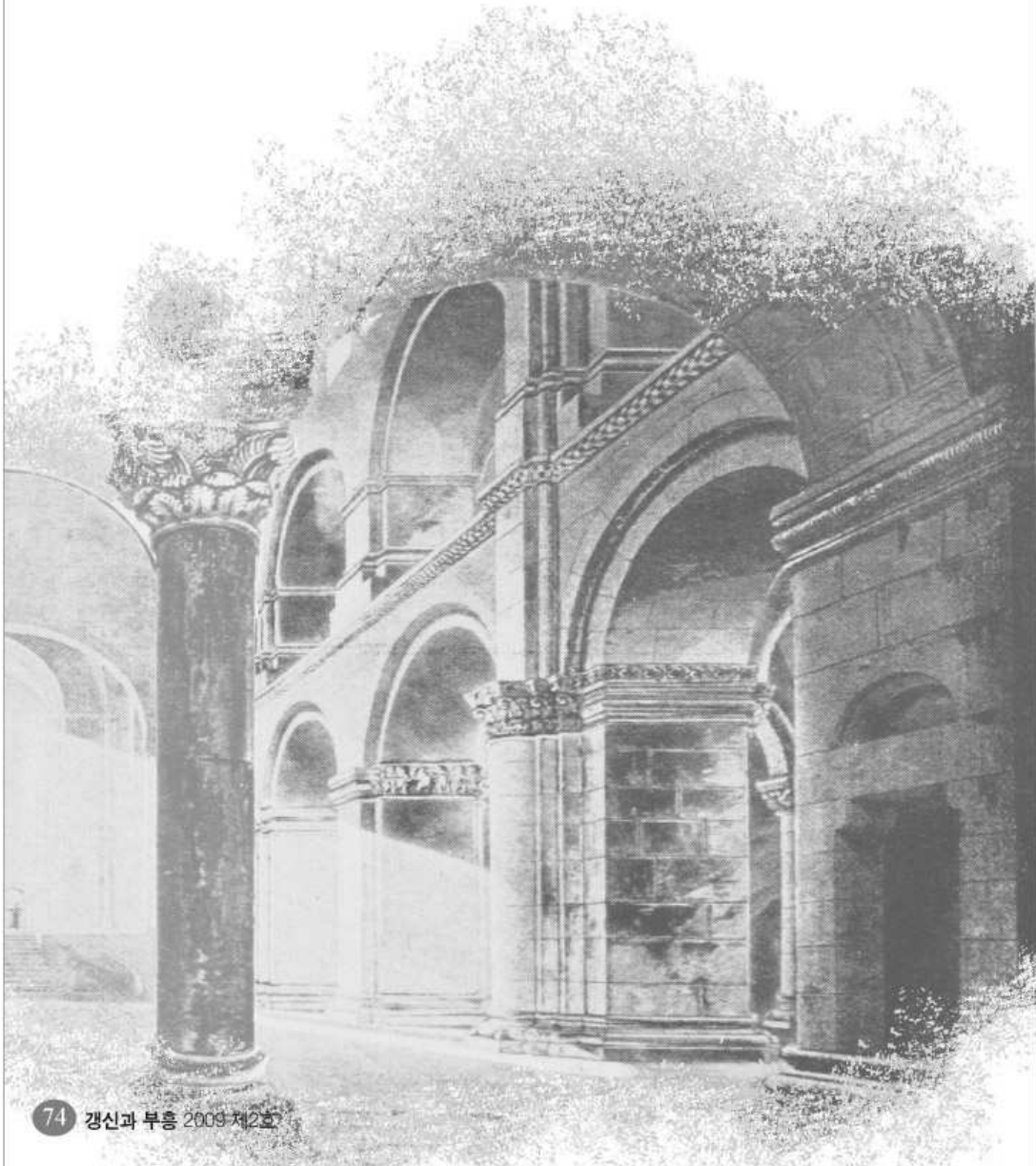
이 점에 있어서 성령에 관한 부서의 가르침이 지닌 독특함이 잘 드러난다. 루터는 두 가지 종류의 인치심을 주장했는데 이는 진리로서 서로를 수용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치신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친다. 부서는 성령이라는 차원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모든 삶을 이해하는데 이 삶은 새로운 삶의 일부를 가능하게 만들지만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기다리는 완전함을 부여하는 보증이 제공된다. 인치심에 의심할 여지없는 확실함이 숨겨져 있다. 동시에 새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성령 사역의 표시에 해당하는 새로운 순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의 선물로서 경험한다. 부서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칼빈의 믿음 개념에 독특한 특징을 부여하는 정의를 생각나게 한다.

-다음 호에는 '존 칼빈' 편이 계속될 예정임-

개혁 신앙 칼럼 (Reformed Essay)

조성국 | 사교육과 그리스도인

편집부 | 마부작침(磨斧作針)과 개혁주의 견인론





현대인과 개혁신앙 ②

사교육과 그리스도인

21세기 한국사회의 난제중 하나는 사교육문제이다. 사교육 문제는 대학입시에 직결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회적 문제

이다.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정상적 기능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교육을 고비용 저효율적인 활동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사교육은 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사회계층이동을 둔화시켜버렸고, 산업구조에 따른 노동인력 배분을 불균형상태로 내몰았으며, 낭비적인 해외유학을 확산시켜 가정경제 및 가족상호관계를 위기 가운데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사교육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교육활동이 교회청소년들의 주일 교회 신앙 활동을 위축시킨 주범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자본주의 세계관으로 구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교육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일은 기독교인 부모들과 기독교교육관계자들의 주요한 과제이다. 짧은 글이지만 사교육의 기초적 문제를 검토하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

공교육과 사교육의 의미

사교육은 공교육과 대비된 용어이다. 공교육이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학교교육을 의미하므로 사교육이란 국가가 시행하는 학교교육 외에, 개인과 단체 혹은 사기업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공교육은 근대국가의 유산이다. 18-19세기에 근대국가가 확립되기 이전까지 서양

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주도의 공교육이 없었다. 근대국가 이전까지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회였고, 사실상 교육의 기회는 일반적인 경우 귀족 및 중산층 자녀들의 특권이였다.

근대국가가 확립된 이후, 교육은 국가의 주도의 활동이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는 모국어와 국사교육을 통해 국가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강화함으로써 전국민을 단합시키고 그 단합된 힘을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교육을 이전처럼 사적인 영역에 맡겨둘 수 없었다. 국가는 정부가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공교육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법을 통해 공립학교 제도를 확립하여 정통성을 독점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전부터 있어온 사교육활동은 억압받았다. 공교육의 기반이었던 초등학교교육은 국민전체의 의무 보편 교육이 되었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공교육은 특별히 평등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근대국가에서 사교육은 억압받으면서도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공동체들은 국가가 학교교육을 독점하여 근대적 세계관만을 형성하는 일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고, 국가도 학교 전체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과 전문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사립학교를 허용하면서 그 대신 교육과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동안 사립학교들은 종교와 특정 세계관에 따라 학교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근대 및 현대국가에서 교육의 자유라는 가치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양에서는 사교육이란 공립학교가 가지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비판하고 특정 공동체들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자 했던 사립학교교육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그 의미가 서양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

대국가시대부터 학교를 인재의 관직등용을 위한 통로로 간주하였고, 그 필요를 위해 처음부터 국가가 설립하였다. 사립 교육기관들이 존재하였지만 국가에 의해 설립된 학교와 교육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었다. 학교교육의 기회는 오직 한정된 관직에 이를 수 있는 양반자녀들의 특권이었다. 양반가의 자녀들은 과거시험의 합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으므로 국가가 임명한 학교교사 외에도 종종 유능한 교사들을 통해 과외교육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편 의무교육으로서의 근대 학교교육은 일제식민지시대에 제한적으로 실행되었고, 해방이후에야 확립되었다. 조선 말기까지 국가가 교육을 주도한 전통, 일제 식민지시대에 일본 정권이 모든 것을 통제한 관례에 따라 해방이후 확립된 권위주의 국가가 학교교육을 주도하였다. 구한말 이후 설립된 사립학교들은 일제 말기에 교육의 자유를 거의 상실하였고 거의 공립학교와 같은 기관이 되어버렸다. 해방이후 사립학교들이 다시 설립 되었지만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그 사립학교들은 서양의 경우처럼 종교 및 세계관에 따른 교육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우리 상황에서 사교육이라는 표현은 사립학교교육을 의미하는 용어가 될 수 없었다. 그 대신 사교육은 제한된 성공에 이르는 통로인 국가주도의 학교교육에서 선발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공적 학교교육활동 외에 이루어지는, 학교교육내용에 대한 반복교육의 과외 학습을 뜻했다. 학교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일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일에 유리한, 선별된 상급학교 진학의 필수조건이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미 확보한 눈치 빠른 부모들은 처음부터 사적인 거래를 통해 현직교사 및 대학생들을 고용하여 자녀들에게 개인과외교육을 시켰다.

1980년대에 이르러 경제성장으로 자녀교육투자가 가능해진 부모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교육경쟁은 치열해졌다. 핵심교과학습을 중심한 과외교육은 개인 교사 고용의 차원을 넘어 점차 학원사업으로 발전하였다. 20세기 말 거의 전 국민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이르자 학교 교육은 전국적인 학습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교육을 통해 학교교육활동에 더 앞서 해당내용을 교육하는 선행학습이 중요해졌다. 선행학습 내지 재학습의 정도가 심화되고 범위가 확대될수록 사교육의 경제적 비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학습이 뒤처질 경우 그 상태를 뒤집기고 앞서기란 어려웠으므로 유학을 통해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중산층부모조차 사교육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였고, 사교육을 사회 문제화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교육활동은 학생과 부모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전투행위가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사교육은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내용에 대한 선행학습 혹은 재학습을 실행하는 과외교육을 뜻하며, 사교육문제는 병적인 경쟁과 비용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고 있다.

사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사교육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서양사회에서 사교육은 처음부터 존재했었고, 특히 사립학교교육은 공립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었다. 학교교육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획일화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인 본주의 세계관에 따라 국가가 해당집단의 세계관 형성을 위한 교육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근대국가의 획일적 이데올로기 주입과 국민동원의 수단으로 삼았던 교육은 결국 제국주의 정복의 야심과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온 과외교육의 사교육도 제한된 의미에서 학습자체의 관점으로 볼 때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의 내용이 학생 개인에게 유의미한 지식이 되려면 충분한 이해와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복과 심화와 범위확대와 구체적 적용은 효율적인 학습의 조건이다. 예습을 의미하는 선행학습은 학교학습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복습을 의미하는 재학습은 이해를 확인하고 내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풀이를 통한 범위확대와 구체적 적용은 이미 얻은 지식의 효용성과 적용성을 높인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학습의 한계를 과외의 사교육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내지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학생 개인의 수준과 문제를 진단하고, 학습문제를 해결하며, 개선시켜주는 좋은 방법이다. 근대 공교육이 방법에 있어 집단학습을 의미한다면 이전부터 사교육은 개인 내지 소그룹 학습이었다. 교육방법의 효과에 있어 집단학습은 개인 내지 소그룹 학습을 능가하기 어렵다. 학습의 반복과 양의 확대, 개인 맞춤형 진단과 문제해결을 핵심활동으로 삼는 사교육은 성적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일수밖에 없다. 이것은 교육학적인 연구 없이도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온 결과들이지만, 교육학자들의 많은 연구들은 사교육과 성적향상, 사교육 지원의 가능성을 뜻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명문학교진학의 상관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학습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 사회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우선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교육이 학습열망을 채워주고 부족한 학습을 채워주는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사교육의 주요한 동기가 경쟁사회안에서 생존과 번성의 본능, 안정과 풍요의 열망과 욕심, 자기성취와 위대화 추구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사교육으로 자녀들이 학습경

쟁자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의도하고,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적어도 자녀들이 그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 사교육논리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켰으므로 사교육의 결과는 자본주의사회의 이상적 직업에 학생들이 몰려들게 했다.

사교육의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고 과중한 학습으로 학생을 학대하는 데 있다. 사교육이 초래하는 기본인권에 대한 학대문제에 관대한 것은 한국사회가 과로를 부추기고 인권의식이 부족한 자본주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노동,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린다. 그들에게 아동기와 청년기의 발달과정은 단지 미래를 위한 비장한 준비를 의미할 뿐, 더 이상 행복한 삶이 아니다. 탐욕과 경쟁은 학생을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한계수준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로가 미래에도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러한 과로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속이지만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평생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교육대상자 모두가 열망하는 것과 달리 단연코 미래에 희망하는 결과를 모두 얻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도 비윤리적이다. 학교학습에 대한 흥미유발 정도의 선행학습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선행학습이라면 학교에서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선행학습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수업이 진행된다면 선행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본래의 정당한 절차는 생략되거나 그 학생들이 무시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흥미가 없어져버린 수업분위기는 산만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도한 사교육 현상은 사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이 학교수업에서 수업목표와 절차에 따라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학교교육은 민주사회에 적합한 전

인교육의 장이 아니라 지식학습의 장으로 변하고 만다.

사교육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사교육 투자의 여유가 학교성적 및 대학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변수가 될 때 사회적 평등의 가치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이동이 둔화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불안정은 커진다. 사교육투자가 확대되어 중산층조차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부모들의 자기 노후 준비가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할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초학습에 맞추어진 사교육은 특정 직업군으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산업구조에 따른 노동인력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노동에 대한 가치의식을 약화시켜 직업세계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연기하게 만든다. 자녀들은 사교육 소비와 비현실적인 비전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 일보다는 지속적인 사교육과 비생산적인 유학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기독교인들에게 사교육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주일날도 진행되는 학원 사교육은 학생들의 주일예배 및 교육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방학에도 진행되는 사교육은 학생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오늘날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서의 위축현상은 사교육에 기인한 바 크다. 학교조차도 법적인 수업시간 외에 사교육성격의 수업을 강요하고, 주일조차도 강요하는 수업으로 기독교인 학생들을 위협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일에 쉬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고, 교회활동에 많이 개입하는 것을 꺼린다. 기독교교육 관련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양의 경우처럼 신앙의 세대적 단절이 이루어지고 교회들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본다.

사교육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응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교육 과잉시대의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는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자본주의구도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은사와 재능의 개발, 소명의 성취를 위한 구비에 맞추어져 있다. 이 목표를 위한 교육의 의도라면 학습 성취를 위한 사교육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사교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인은 사교육 만능주의자, 혹은 사교육 전도사와 찬양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 안에서 사교육에 기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좋지 못하다. 실제로 신실한 기독교인에게 사교육 기회이용은 상당히 불편하다. 주일과 방학의 신앙교육활동은 사교육의 흐름을 끊어놓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포기하고 그 관심을 사교육으로 옮길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학습의 양이 부족하여 희망하는 대학진학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한해 더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할지언정 신앙적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둘째, 사교육의 기회가 귀족과 상류계층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경제적 조건은 이 기회의 문을 닫는다. 따라서 경제적 조건으로 개인학습을 받을 수 없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국가에 의해 제공된다면 좋을 것이다. 국가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평등의 조건을 높이는데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교육에서 상류계층보다 하위계층의 조건개선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특목고에 투자하기보다 중하위계층에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투자하여 그들

이 중상위계층 자녀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대복지국가는 경쟁의 가치에 몰입하기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기업이 경쟁의 가치를 높인다면 국가는 평등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사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하위계층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간섭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학력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세금으로 상당부분 조정해주고, 하위계층을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비전체, 그리고 전문대학 학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고, 국립 및 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소득비율로 지불하게 함으로써 하위계층 자녀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법 개정을 지지할 수 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사교육의 한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교육의 홍보와 부모의 기대와 달리 자녀들은 사교육을 통해 동일한 목표에 도달되지 않는다. 인간은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소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기초교육에 집중된 사교육이 모두의 동일한 비전을 실현시켜줄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된 직업에만 집착하여 사교육을 통해 끝없이 그 성취를 추구하기보다 재능과 소명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서 능력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시절이 시민 됨의 교육이라는 평등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등학교 이후는 재능과 은사에 따른 다양한 학교의 진학, 그리고 인문계 학교의 경우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방향이 옳다. 이러한 방향은 사교육의 필요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다.

넷째,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 학교 공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 외의 시간에 강제하는 수업은 법

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법정 수업 외에는 전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와 선택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학교와 교사의 권리가 아니다. 동시에 사기업으로서의 학원이 심야수업을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인권을 배려하지 않는 결정이다. 주일에는 학교의 공교육이건 학원의 사교육이건 수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인권이 성인에게 의존되어 있다고 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억제 당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과로하는 사회, 과로를 강요하는 사회는 병적인 사회이다. 병적인 경쟁의 사회는 모두를 병들게 하고 모두에게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지우는 사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구원과 복지를 위해 경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와 협력과 봉사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사회 안에서 기본법적인 원칙이 지켜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이익 중심의 자본주의의, 길들여지지 않는 말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한자성어와 함께 고찰하는 개혁주의 핵심교리 ②

마부작침(磨斧作針)과 개혁주의 견인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마 17:20, 참고,

마 21:21; 막 11:23; 눅 17:6)에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흔히 우리 믿음이 지닌 위대한 능력을 잘 보여주는 구절로 알고 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타인의 도움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산을 파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지속적인 능력과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을 동시에 소유해야 함을 뜻한다. 이런 능력과 인내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남송(南宋) 때 축목(祝穆)이 지은 지리서인 <방여승람(方輿勝覽)>과 당서(唐書) <문예전(文藝傳)>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당(唐)나라 때 탁월한 문장력으로 시선(詩仙)으로 불렸던 이백(李白)은 무역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촉(蜀)나라에서 보냈다. 젊은 시절 도교(道教)에 심취했던 그는 여러 무리들과 어울려 사천성(四川省)의 여러 산을 떠돌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학문을 위해 상선산(象宜山)에 들어갔지만 이백은 곧 공부에 싫증이 나게 되어 하산하게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노파가 냇가에서 바위에 도끼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백이 물었다. “할머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늘을 만들려고 한단

다.” 노파의 대답을 들은 그가 기가 막혀서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큰 소리로 웃어버렸는데, 이에 노파는 가만히 이백을 쳐다보며 꾸짖듯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얘야, 비웃을 일이 아니다.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도끼로 바늘을 만들 수가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백은 ‘그만 두지만 않는다면’이라는 노파의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크게 깨달은 바 있어 산으로 되돌아가서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글공부에 임하였다고 한다. 그가 고금을 통하여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만 두지만 않는다면”이라는 인내의 교훈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를 실천에 옮긴 데 있다. 이 일화에서 비롯된 ‘마부작침’이란 한자성어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적 교훈을 지닌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에서도 마부작침과 비슷한 내용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인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7-8).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에 관해서 교훈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종말을 향한 소망에서 비롯된 인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인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무엇보다 간절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대망의 인내이다. 그렇다면 이 인내에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11절에 밝히는 바와 같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이 인내는 도끼가 언젠가는 바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다른 것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약속에 근거한 인내,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견인교리의 핵심에 해당된다. 이는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 신뢰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양면적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는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부인하는 부정적 차원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또 하나는 자신이 구원받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긍정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의 인내이다. 개혁주의 견인의 교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요구하는 마부작침의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은 놀라운 가르침을 담고 있다. 자기 부인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인내야말로 참된 견인교리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는 종말론적 믿음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런 믿음에 기초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소유하게 된다. 개혁주의 견인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한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그만큼 믿음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특별한 것이다. 칼빈은 마 21:21을 해석하면서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에게 신앙을 둔다는 것은 ... 우리의 요구가 무엇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뜻이다. ... 만일 예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너무 임의적인 것으로, 아니면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이다.” (co 45,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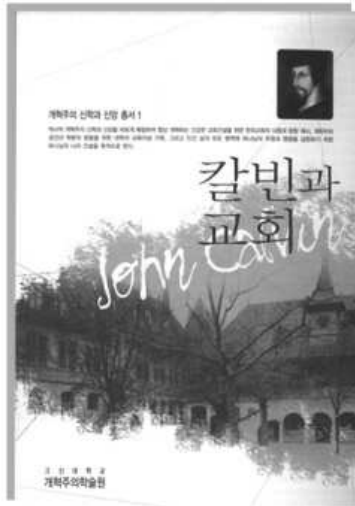
이런 차원에서 살펴볼 때, 개혁주의 견인교리가 제시하는 인내에 대한 견해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이다. 이는 인간 능력에 대한 도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다시 고찰하도록

만든다. 만약 인간의 무한 도전과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내가 자신의 긍정적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이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서 주어지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동반될 때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구원의 최종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인내가 발생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이라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히 마부작침의 교훈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이를 초월하는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이 원래 지닌 세상을 향한 소욕을 버리는 자기 부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신뢰가 이 교리에 전제되어 있음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이라는 대전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개혁주의학술원 신간 - 책소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①

칼빈과 교회



.....

개혁주의자들이 요구한 교회개혁의 핵심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개혁의 표준은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며 개혁의 태도는 창조가 아니라 회개이다.

종교개혁이란 새로운 것의 창조와 확립이 아니라 성경적인 옛것의 갱신과 재확립이다. 루터가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회개의 요청과 더불어 시작한 것은 회개 즉 성경적 신앙의 회복이야말로 교회갱신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물질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은밀히 기획되어진 오늘 교회안의 온갖 인위적인 조작은 결국 교회를 갱신하기 보다는 오히려 훼손할 뿐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편 | 2007 | 10,000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②

칼빈과 성경



.....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말씀의 진리 안에서 모든 약한 타협을 거부하기 위해 보수주의자보다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성경으로"의 길, 즉 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이 되는 길 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들은 말씀의 표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변해서 회개해야 하고 또한 너무 변하지 않아서 회개해야 한다. ...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과 충족한 근거임을 새롭게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편 | 2008 | 10,000원〉

서평 (Book Review)

김철봉 | 옥성호,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황대우 | 리처드 마우, 칼빈주의, 라스베이거스 공항을 가다

이상웅 | 조너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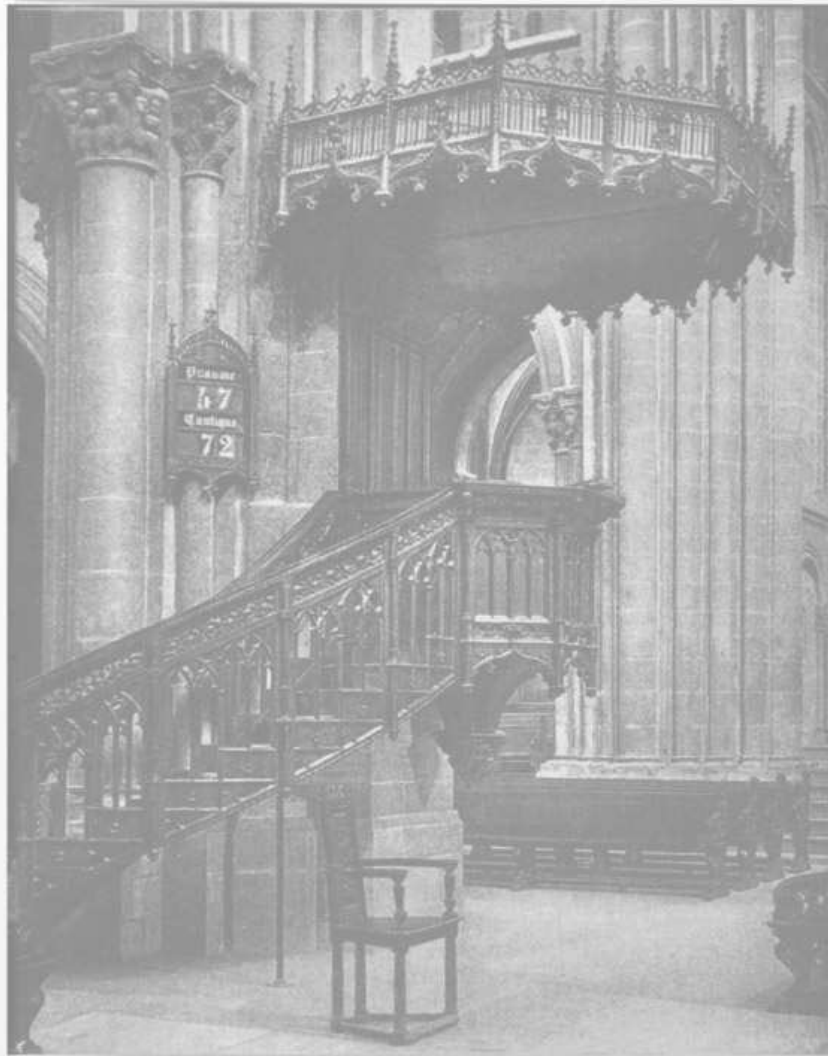


서평 (Book Review)

김철봉 | 옥성호,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황대우 | 리처드 마우, 『칼빈주의, 라스베이거스 공항을 가다』

이상웅 | 조너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는 재미 한국인 벤처 기업 중 하나인 위즈도메인(Wisdomain)에서 세일즈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의식 있는 크리스찬인 옥성호 형제가 탈고(脫稿)한 글이다. 그는 최근에 ‘부족한 기독교’ 3부작 시리즈를 출간하였다. 1부 ‘심리학

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를 비롯하여, 2부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를 연이어 출판하였고, 3부로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의 출판을 끝이어서 준비하고 있다. 본서는 출판되면서부터, 아니 출판되기 전부터 한국 교회에 센세이션(sensation)을 불러 일으켰다. 그 이유는 바로 저자가 사랑의 교회 원로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지음,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목사인 옥한흠 목사의 장남이었기 때문이다. 옥한흠 목사의 아들이 출판한 책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거침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본서를 통하여 오직 부흥과 성장만을 지향하는 21세기 교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본서가 베스트셀러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자인 옥성호 형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신도로서 이런 책을 쓰는 것은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각오하고 본서를 기록했다면, 그의 용기는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온갖 세상의 방법론과 처세술(處世術)이 만연한 한국 교회의 분위기를 지적하며, 따끔한 채찍질을 가한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와 같은 목사나 신학도가 아닌 평신도가 이런 책을 썼다는 점에서 본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렇다면 저자가 본서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과연 무엇일까? 저자의 핵심 논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금(昨今)의 기독교가 심리학과 같은 세속적인 학문에 물들어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 성경의 진리 보다 심리학과 경영학, 그리고 마케팅의 원리들을 더 믿는 사이비 기독교 신앙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다고 주장한다. 심리학이 성경의 원리를 대신하며, 성경 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내적 상담을 비롯한 심리 치료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한국 교회에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나름대로의 예리한 통찰력(insight)을 가지고, 심리학이 기독교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을 충분히 서술하고 있다.

우선 본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서는 크게 다섯 장(chapter)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째 장에서는 '심리학이 과학인가, 종교인가?'에 관한 물음에 답을 하고 있다. 심리학은 객관적인 과학이라기보다는, 종교의 속성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낼 수 없는 종교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에, 심리학은 과학이 아닌 종교라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학은 진화론에서

비롯된 것이며, 근저에 깔려 있는 사상은 뉴에이지(New Age) 사상이라고, 심리학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심리학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장에서는 기독교 심리학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기독교 심리학 역시 일반 심리학과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 상담학계를 대표하는 두 주자, 게리 콜린스(Gary R. Collins)와 제이 아담스(Jay E. Adams)를 서로 비교하면서, 특히 심리학을 과학으로 보는 게리 콜린스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학문은 프로이트(Sigmund Freud)나 융(Carl Jung)과 같은 일반 심리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심리학' 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되었으며, 단지 '기독교' 라는 용어를 붙였을 뿐이지 기독교 심리학은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 심리학은 성경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성경 말씀을 심리학 이론에 맞추기 위해서 임의로 가져온다고 한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소위 짜 맞추기 식의 성경 사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 예로 정태기 목사와 주서택 목사, 그리고 시먼스 (David A. Seamands)의 의견을 반박하며, 그들의 성경의 인용 및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셋째 장에서 그의 주장은 더욱 진일보(進一步) 된다. 심리학은 절대로 성경적일 수가 없고, 반기독교 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심리학의 가르침 또는 심리학 이론의 본질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리학은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또한 인간 본성의 선함 혹은 중립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반기독교 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장에서는 기독교가 프로이트와 융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단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온 심리학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거의 폭탄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탄이 심리학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침투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장에서는 심리학이 쓴 세 개의 가면이라는 주제로 그의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심리학의 진짜 가면은 무의식이다. 첫째 가면인 자기 사랑을 통해 무의식의 가치를 일깨우고, 그 위에 두 번째 가면인 긍정적 사고를 통해 무의식을 살찌우며, 세 번째 가면인 성공의 법칙의 획득을 통해 무의식에게 결코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오늘날 심리학이 자기 사랑, 긍정적 사고, 성공의 법칙이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 장에서는 기독교는 심리학의 방법론이 필요 없는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과 같이, 오직 성경(Sola Scriptura)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이 성경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이 아닌 오직 성경만으로 기독교는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본서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본서를 읽으면서 희미(喜悲)가 교차되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에 이런 실력을 갖춘 인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심리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한국 교회를 너무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본서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강한 인상은 저자의 주장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방대한 독서량과 신학적인 깊이는 인정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어쨌든 본서는 한국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기

독교 심리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크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본서가 출판된 이후, 본서를 반박하는 수많은 글들이 웹에서, 기고 글에서 등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기독교가 심리학에 물들어 부족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반박하는 글을 기록하였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하재성 교수는 '부족한 기독교'가 아닌, '지혜로운 기독교'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미 사회과학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심리학이나 혹은 다른 인문과학의 영역에 대해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의심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과 같으며, 기독교의 진리가 심리학과 같은 신지식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의심 많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필자도 하재성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저자가 심리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심리학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이 저자의 주장처럼 반기독교적인 학문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류의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온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심리학도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 중심으로 출발한 심리학이 기독교의 진리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심리학에 의해서 반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심리학자들도 말씀의 권위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심리학도 얼마든지 성경을 뒷받침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리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기독교 내적 치유의 권위자들이다.(사실 프로이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심리학들이 심판대 위에 올라온 사실은 재미있는 일이다.) 아마 그들이 본서를 읽었다면, 상당히 감정이 상했을 것

이다. 또 한편으로 “과연 저자가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저자는 심리학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심리학을 함부로 난도질 해 버리고, 평가절하(平價切下)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심리학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심리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권위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심리학을 개인적으로 연구했다고는 하나, 심리학에 대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권위자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심리학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며, 예의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서 본서를 균형 있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서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나뉜다. 그러나 필자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본서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저자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필요도 없고, 또한 무조건 배척할 필요도 없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에, 본서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는 성경의 진리 보다, 심리학과 같은 세속적인 방법들을 우선시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에 던지는 경고장과도 같다. 21세기 속에서 복음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에 꼭 필요한 책들을 쓰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있는 옥성호 형제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면, 아무런 검증 없이 세상의 철학과 방법들을 가져오는 현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냉철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심리학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다. 한국 기독교는 얼마든지 심리학이 미치는 악영향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심리학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은총의 과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진리의 성령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한국 기독교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리처드 마우는 풀러 신학 대학원(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원장이면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휴턴 대학(Houghton College) 학부를 졸업한 후, 웨스턴 신학 대학원(Wester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을 전공하였고, 시카고 대학교

(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칼빈 대학(Calvin College)에서 17년 동안 기독교 철학 담당 교수로 지냈고, 1985년과 1993년에 각각 풀러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저자는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네덜란드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자랐으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국의 칼빈주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

리처드 마우(Richard Mouw) 지음,
김동규 옮김. 서울: SFC, 2008

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주로 그의 할머니에게 큰 신앙적 영향을 받았고, 특별히 찰스 스펀전(Charles Spurgeon)의 “선택”이라는 설교를 읽고 충격적인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카이퍼주의자이다.

저자는 이 책(원서명, Calvinism in the Las Vegas Airport: Making Connections in Today's World)을 폴 슈라이더(Paul Schrader)



가 제작한 영화 <하드코어(Hardcore)>로부터 시작한다. 슈뢰더는 칼빈대학 때 반항적인 시절을 보내었으나, 졸업 후 영화작가와 감독으로 성공하였다. 그의 성공작들 가운데 하나로는 <택시 드라이버(Taxi Driver)>가 있다. <하드코어>의 배경은 라스베가스 공항이다. 영화는 탑승 대기실에서 니키(Niki)라는 불신 여성과 경건한 칼빈주의 교회 장로인 제이크 판 도른(Jake Van Dom)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어떤 교파의 교회를 다니는가라는 니키의 질문에 제이크는 네덜란드 개혁신교회라고 대답하면서 튜립(TULIP) 교리를 믿는 교파라고 설명한다. 튜립 교리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니키는 “음... 전부 결정되어 버린 거네요”라고 반응한다. 이에 제이크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교리를 외부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보아야 한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그 장면 소개는 끝난다. 저자는 이 장면에 비취는 제이크의 모습을 마치 신학적으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한 소녀에게 17세기 장로교 교리를 엄숙하게 요약하고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한다.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칼빈주의가 그와 같은 딱딱하고 냉정한 모습이라고 암시한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21세기의 칼빈주의자가 되는 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집중하려고 한다(23).” 칼빈주의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이고 그의 시대에도 오늘날의 미국처럼 칼빈주의라는 용어는 환영받지 못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리고 “나는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칼빈주의자’라는 용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24)”라고 한 에드워즈의 주장에 저자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자들이 사용했던 거칠고 신랄한 언어까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인 튜립 교리(1. 전적부패(Total depravity) 2.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3. 제한된 속죄(Limited atonement) 4.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5.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를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순전한 칼빈주의

(Mere Calvinism)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먼저 전적 부패 교리를 설명한다. 저자는 이것이 인간의 상태를 진단한 적절한 교리라고 본다. 즉 구원에 받는 일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며 죄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인간의 본성적 사고와 욕망과 행위 모두가 완전히 타락한 것으로 보는 “절대적(absolute)” 타락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경고한다(43). 둘째로 저자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단순한 지적 추상”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실제적 경험을 포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47). 동시에 저자는 이 선택 교리가 “칼빈주의가 스스로 자기의 상황에 만족해버리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며 “책임”을 요구하는 교리라는 점을 상기시킨다(49). 셋째로 저자는 제한된 구원 교리를 “완성된 미션”으로 재해석하면서 이 교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초점을 고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넷째로 저자는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를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정의하면서 전적 부패 교리와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경험되는 교리”, 즉 “하나님에게 붙잡힌바 되었다”고 느끼는 교리라고 해석한다. 다섯째로 저자는 성도들의 견인 교리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해석하면서 “견인(perseverance, 인내)”이란 단어를 “보존(preservation)”이라는 단어로 바꾸자고 제안한 어떤 칼빈주의자들의 견해에 매력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이유는 네 번째 교리까지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는데, 다섯 번째 교리에서 갑자기 행위의 주체가 인간으로 바뀌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 없이는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시 위해 자신의 능력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틀림 교리를 하나씩 해설한 후에 칼빈주의 교리의 가장 큰 암초가 “제한된 구원”과 연관된 것인데, 왜냐하면 그 교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

사역을 “제한적인” 것처럼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며, 또한 복음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을 주저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저자는 칼빈주의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로 대답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쾌하게 모조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탄원과 불평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죄와 죽음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신음하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도 침묵하신다. 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근거이고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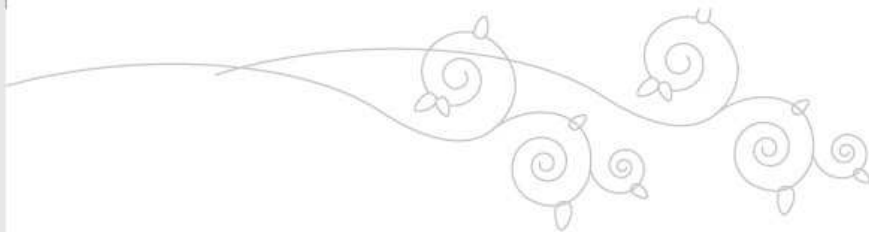
저자는 환락의 도시, 사악한 도시 라스베가스를 “‘새 예루살렘’의 모조품”이라 부른다. 밤이 없는 도시 “라스베가스는 지갑을 꺼내기만 하면 좋은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거짓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인간의 성취에 대한 허구적인 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62). 라스베가스는 외면적으로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도시이지만 내적으로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도시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환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환경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두울수록, 이해 불가능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희망의 전주곡이며 통로이다.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발견하게 된다. 이 위로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교육서가 잘 가르쳐 준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하드코어〉

에 등장하는 인물 제이크는 바로 이 점에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던 것이다. 그는 16세기 하이델베르크로 가지 않고, 17세기 툴립 교리의 도시인 도르트레흐트(Dordrecht)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되는 자들이므로 천상적인 선택의 문제는 곧 지상적인 책임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Coram Deo)” 선 존재라는 것이다.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점에서 카이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해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신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124)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자는 전형적인 카이퍼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의 세상 정복과 승리를 위한 구호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저자는 “이런 생각을 좋아하는 것조차도 건전치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나 모든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충성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명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지적하는 칼빈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불관용의 모습”이다. “툴립 교리로 요약되는 ‘순전한 칼빈주의’ 는, 이런 점에서 보다 넓은 신학적 지평을 아우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184).” 즉 “‘순전한 칼빈주의’ 는 보다 풍성 하질 필요가 있다.” 현대 칼빈주의자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래서 저자는 “나는 스피전의 관대한 정신을 좋아한다. 나는 칼빈주의자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칼빈주의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험과 관심을 가장 잘 포착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라고 주장하였다.

리처드 마우의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는 칼빈주의의 기본 정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상과 사고체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칼빈주의”와 “폭 넓은 칼빈주의”가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다. 융졸한 칼빈주의는 16세기 칼빈주의 정신이 아니라 17세기 칼빈주의 정신이다. 융졸한 칼빈주의는 칼빈주의의 왜곡되고 일그러진 모습이다. 오늘날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한국교회들은 칼빈주의 정신이 가르치는바 ‘지양 해야 할 것과 ‘지향 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나친 융졸함과 지나친 관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을 진리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으로 가르치고 진리로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을 때는 진리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좋지만 나쁠 때는 사랑의 뿌리까지도 말려버릴 만큼 모든 것이 나쁘다. 사랑 안에서 일하는 진리, 진리 안에서 빛나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우리의 칼빈주의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슬 시퍼런 망나니의 칼이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물거리는 장난감과 같은 칼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책 이외에 이 책만큼 많이 읽어 본 책이 없다. 나는 2005년 벽두에 발간된 『신앙감정론』(A Treatise Concerning the Religious Affections) 초판본을 구입한 이래 지난 4년 동안 여덟 번을 정독했다. 700쪽이 넘는 이 책을 읽고 백 수십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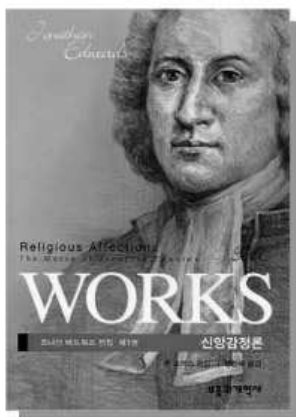
에 달하는 요약문을 손수 타이핑 했을 뿐 아니라, 두어 차례 강독회를 인도했고, 몸담고 있는 신학교에서 매년 가을 학기 마다 강의를 진행해 오기도 했다. 금번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을 주제로 총신대학교에서 학위논문을 쓰면서도 이 책을 수도 없이 참조해야만 했다. 18세기 미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에

드워즈라는 사람의 중요성이 어떠한가에, 그리고 본서가 가지는 가치가 도대체 어떠한가에 그토록 간절한 심정으로 읽고, 소개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렇게 읽고도 아직도 더 읽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매력이 무엇일까?

본서를 애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다음의 에피소드들을 읽어보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로이드 존스의 동사 목사를 지낸 바 있는 이안 머리가 쓴 조나단 에드워즈 전기에 보면 19

『신앙감정론』

조나단 에드워즈 지음,
정성욱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세기 미국에 있는 한 시골교회의 상황을 소개해 주는 대목이 있다. 새로운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시골의 평신도 한 사람이 신학의 대가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목사가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그 사람은 단지 에드워즈가 쓴 본서를 6번 읽었다는 것이었다(Ian H. Murray, Jonathan Edwards: A New Biography, 1988, 458). 그리고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간단명료한 입문서를 쓴 스티븐 니콜스는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다음으로 씩씩해 볼 만한 중요한 독보적인 책자라는 말을 했다(Stephen J. Nichols, Jonathan Edwards: A Guided Tour of His Life and Thought, 2001, 17).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에드워즈 마니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존 파이퍼 목사는 “이 책은 에드워즈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욱 나의 개인적 역사와 개인적 성장의 결합에 도움을 주었습니다”고 고백한 바 있다(존 파이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2003, 141). 이처럼 중요성이 강조되는 책인 만큼 한 번 읽고 말수는 없었고 계속 읽다 보니 여덟 번 까지 읽게 된 것이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18세기 사람 에드워즈의 저작들을 읽는가? 사람들마다 이유가 다를 것이다. 본인은 1990년에 읽기 시작한 로이드 존스(Martyn Lloyd Jones)를 통해서 에드워즈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로이드 존스는 The Puritans에 실린 한 강연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저런 집회에 참석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집에 들어앉아서 학맨 편집의 에드워즈 전집을 거듭 거듭 읽으라고 권면했다. 로이드 존스가 최고의 강해설교자라고 믿고 있었던 나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추천을 받은 셈이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추천에 따라서 이런 저런 번역서들이나 영어 글들을 구입하기는 했지만, 집중적으로 읽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서서 참된 부흥에 대한 관심이 절실해 지면서 부흥,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에드워즈의 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겠지만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온갖 비성경적인 성령운동이나 부흥운동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교도 영성을 운운하는 모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의 이목

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말 저분이 청교도 영성을 제대로 아는가? 정말 에드워즈를 읽은 사람인가 우려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목회 현장과 한국 교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올바른 가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성경과 그리고 에드워즈의 저작들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그릇된 부흥운동에 대한 교정제(corrective)로서 에드워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성욱 교수가 번역한 『신앙 감정론』은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특히 참된 신앙의 감정적/정서적 체험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명석하고도 풍부하게 천착하고 밝혀낸 명작이다. 에드워즈는 신학적으로 칼빈주의 정통주의 신학자요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인이면서도, 1730년대, 40년대 뉴잉글랜드를 휩쓸었던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로서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있어서 성령을 체험했던 영성가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야말로 무엇이 참된 성령의 역사이며, 어떤 것이 아닌가? 무엇이 참 신앙의 본질인가? 무엇이 참과 거짓된 신앙 체험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인가에 대해서 표준적인 책을 쓸 역량과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에드워즈의 개인적 기록들이나 결심문을 보면 그는 신앙의 각성 초기부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기초를 가지고 『신앙의 감정론』, 『사랑과 그 열매』, 『성령의 사역 분별 방법』, 『놀라운 회심 이야기』, 『균형 잡힌 부흥론』 등을 통해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논구를 하였다.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은 크게 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에서 에드워즈가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True religion, in great part, consists in holy affections)"는 교리적 명제로 압축된다(147). 우리말로 정서 혹은 애정이라고도 번역되는 'affection'을 정성욱 교수는 '감정'이라고 옮겼다. 에드워즈는 'affection'의 정의를 "한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의지와 성향이 지닌 더 활기차고 감지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였

다(148).

에드워즈는 제2부에서 신앙 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즉 성령의 역사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소극적인 표지 12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이런 소극적인 표지들을 가지고서 자신이 성령을 체험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어볼 만한 것이다. 1. 신앙 감정이 매우 크게 발휘되거나 아주 높이 고양되는 것 자체는 그 감정들이 은혜로운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지가 아니다. 2. 감정이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그 감정에 참된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표지가 아니다. 3. 신앙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일들을 매우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감정들이 은혜로운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지는 아니다. 4. 신앙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일들을 매우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감정들이 은혜로운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지는 아니다. 5. 신앙 감정들이 성경 본문을 마음속에 기억나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 감정들이 거룩하고 영적인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지가 아니다. 6. 사람들이 체험하는 감정에서 사랑이(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그 감정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감정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표지가 아니다. 7. 사람들이 여러 신앙 감정들을 동시에 체험했다는 사실은 그 감정들이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8. 양심의 각성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후에 어떤 일정한 순서를 따라 위로의 기쁨이 뒤따른다는 사실로는 그 감정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다. 9.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감정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하고, 예배의 외부적인 의무들에 열심히 헌신하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감정

에 참된 신앙의 본질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표지는 아니다. 10. 사람들이 가진 신앙 감정이 그들로 하여금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사실로는 그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11. 어떤 감정이 생긴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의 체험이 신령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있다고 크게 확신한다는 사실은 그 감정이 바른 것인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될 수 없다. 12. 사람들이 밖으로 표현한 감정이 참된 성도들의 마음에 들고 호응을 얻을 만큼 크게 감화력이 있고 기쁨은 준다든 사실만으로는 그 신앙 감정의 본질이 어떠한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제3부에서는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즉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참된 감정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로서 다음의 12가지를 들고 있다. 이 12가지 표지들은 『신앙 감정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분량 상으로 중요하지만, 내용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1. 참으로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은 영적인, 초자연적인, 신적인 영향과 작용들이 그들 마음에 역사할 때 생겨나게 된다. 2. 은혜로운 감정이 생기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신적인 일들이 가장 탁월하며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는 데 있어야지, 그 일들이 자기 이익과 관련되었다는 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참으로 거룩한 감정들은 주로 신적인 일들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탁월성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 달리 표현하면, 신적인 일들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탁월성이 아름답고 향기롭기 때문에, 신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거룩한 감정들의 시작이며 원천이다. 4. 은혜로운 감정은 지성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생긴다. 5. 은혜로운 감정은 신적인 일들에 대한 실재성과 확실성을 합리적이고도 영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 준다. 6. 은혜로운 감정은 복음적인 겸손을 동반한다. 7. 은혜로운 감정을 다른 감정들과 구별하게 해 주는 또 하나의 표지는 은혜로운 감정은 본성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8. 참으로 은혜로운 감

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 같고, 비둘기 같은 심령과 기질을 가지도록 돕고, 그것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거짓되고 기만적인 감정들과 다르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온유, 평온함, 용서, 자비의 심령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도와준다. 9. 은혜로운 감정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기독교적인 온유한 마음을 동반하고 산출한다. 10. 참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들이 거짓된 감정들과 다른 점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이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11. 은혜로운 감정들과 다른 감정들 사이에 차이점을 크고 뚜렷하게 구분해 주는 또 하나의 다른 표지는 은혜로운 감정들이 더 높이 고양되면 고양될수록, 영적인 만족을 위한 영혼의 영적인 욕구와 갈망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거짓된 감정들은 그 자체로도 만족해한다. 12.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다. 거룩한 감정들은 그 감정들을 경험하는 주체인 성도에게 영향력과 효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로 기독교의 원리와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그 원리에 따라 규정되는 행위는 성도가 일생 동안 실천하고 마땅히 행해야 한다.

나는 본서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참된 부흥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혀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로이드 존스의 권면처럼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때가 늦기 전에 이런 책자들을 붙잡고 한 번 씩씩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혼자서 힘이 든다면 동료들과 더불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라도 꼭 한 번 씩씩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앞선 독자들의 평이 그러하였고, 본인의 독서 체험이 그러하였지만, 이러한 시도는 후회하지 않을 독서체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번 맛을 들이면 다시금 찾을 수밖에 없는 영적 진수성찬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주의학술원 소식

✦ 제 5회 교수포럼(Faculty Forum)

제 5회 교수포럼(Faculty Forum)이 고신대학교 살롬관 김현태홀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교수포럼은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주제들에 관하여 고신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이 함께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개혁주의 학문창달과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교수포럼 강사 및 주제

강사 : 이병욱 교수, "인간 유전체 연구의 경향 및 생명윤리"
정병갑 교수, "식물에 나타난 창조섭리"
이정숙 교수, "성경의 영양교육"

일시 : 2009년 6월 4일(목) 오후 4시



개혁주의학술원 소식

✦ 제 5회 교수포럼(Faculty Forum)

제 5회 교수포럼(Faculty Forum)이 고신대학교 살롬관 김현태홀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교수포럼은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주제들에 관하여 고신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이 함께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개혁주의 학문창달과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교수포럼 강사 및 주제

강사 : 이병욱 교수, "인간 유전체 연구의 경향 및 생명윤리"
정병갑 교수, "식물에 나타난 창조섭리"
이정숙 교수, "성경의 영양교육"

일시 : 2009년 6월 4일(목) 오후 4시

칼빈 출생 500주년 기념 한국 칼빈 학술 대회

- 초청의 말씀 -

2009년은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위대한 교회개혁자이며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선구자인 존 칼빈 (John Calvin, 1509-1564)이 출생한지 5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칼빈의 신학은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정통교회의 뿌리 깊은 역사적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참된 생명력과 바른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해 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계14:6)에 철저히 복종하였던 그의 신학과 사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의 살아있는 교훈이며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햇불이라고 믿습니다.

개혁주의학술원은 칼빈 출생 500주년을 맞아 칼빈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물려받은 그의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의 유산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한국의 교회와 사회가 아름다운 개혁주의 토대위에 굳게 서서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칼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학술대회를 존경하는 역대 한국 칼빈학회장과 아시아 칼빈학회장님, 그리고 판 스파이커(W. van't Spijker)박사님을 모시고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은 개혁주의학술원의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리고 본 학술대회의 재정을 후원해주신 모든민족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교회와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아름다운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개혁주의학술원장 이환봉 올림

한국 칼빈 학술 대회 일정

- 칼빈의 유산과 현대적 의의 - (The Legacy of Calvin and Its Modern Meaning)

세미나 (I) 2009년 5월 13일 (수) 오후 2시



판 스피이커(W. van't Spijker) 박사

"칼빈의 유산: 칼빈 신학의 현대적 의의"

(A Legacy of Calvin: Meaning of Calvin's Theology for Today's Church)

- 전 네덜란드 아몰드론 신학대학 교회사 교수
- 현 네덜란드 아몰드론 신학대학 교회사 명예교수



한철하 박사

"칼빈의 유산: 신학의 원리와 방법"

(A Legacy of Calvin: Principle and Method of Calvin's Theology)

- 전 한국칼빈학회 회장,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원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 현 한국칼빈학회 명예회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명예총장, 한국복음주의신학회(KETS) 명예회장



정성구 박사

"칼빈의 유산: 목회의 원리와 실천"

(A Legacy of Calvin: Principle and Method of Calvin's Pastoral Ministry)

- 전 한국칼빈학회 회장, 총신대학교 학총장, 대학원장, 신대원장, 목회대학원장, 대신대학교 총장
- 현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원장,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 논찬: 임영효 교수, 신득일 교수, 이신열 교수

세미나 (II) 2009년 5월 19일 (화) 오후 2시



와타나베 노부오 박사

"칼빈의 유산: 개혁주의 사상의 현대적 의의"

(A Legacy of Calvin: Meaning of Reformed Theology for Today's Church)

- 전 일본 칼빈학회 회장, 아시아 칼빈학회 회장
- 현 일본 동경 고백교회 목사



이수영 박사

"칼빈의 유산: 정치와 국가"

(A Legacy of Calvin: Church and State in Calvin's Thought)

- 전 한국칼빈학회 회장, 정론회신학대학교 교수
- 현 아시아칼빈학회 회장, 세계칼빈학회 중앙위원회 종신위원, 새문안교회 담임목사



이양호 박사

"칼빈의 유산: 경제와 사회"

(A Legacy of Calvin: Society and Economy in Calvin's Thought)

- 전 한국칼빈학회 회장.
- 현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

◆ 논찬: 이상규 교수, 이병수 교수, 이복수 교수



한국 칼빈 학술대회 후원교회

- 모든 민족 교회 -

담임 목사: 최정철

시무장로:

김창대 성기봉 김승국 박노진 김안식
이장선 임길주 배상환 천병선 송재철

✦ 「모든 민족 교회」

일천만원 후원금 전달

김해에 「모든 민족 교회」(최정철 담임 목사)에서 작년에도 일시불 지원으로 15,000,000원의 학술원 지정후원금을 학교에 기탁해주셔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새로

운 부흥을 위한 학술원의 연구 및 출판 활동에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올해에도 “칼빈 출생 500주년 기념 한국 칼빈 학술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10,000,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최정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제2차 「개혁신앙 아카데미」 개설 교회 모집

제2차 개혁신앙 아카데미의 개설을 희망하는 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혁신앙 아카데미는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면서도 개혁주의 신앙의 역사와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교회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이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개혁주의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아카데미 개설을 요청한 교회를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카데미의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카데미 주제 및 강사진

-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상규 교수)
-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환봉 교수)
- “개혁주의 교회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전광식 교수)
- “개혁주의 교회의 문화관은 무엇인가?” (이신열 교수)
- “개혁주의 교회의 교육관은 무엇인가?” (김성수 총장)
- “개혁주의 교회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황대우 박사)

운영 방식

지역교회의 요청을 따라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매주(주일 오후) 1주제 또는 2주제 단위로 연속 6주간 또는 3주간에 걸쳐 강사들이 차례로 강의합니다. 주일 오후에 시간은 해당 교회와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지역교회에 적합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협력을 받아 학생을 모집하되 주로 제직과 교사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고신대학교 학술원의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개혁신앙아카데미는 매학기에 교회 별로 시작될 예정이며 항상 사전에 신청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1차 개혁신앙아카데미를 수료한 학생 수는 총 391명이며, 참여한 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민족교회(최정철 목사), 사직동교회(김철봉 목사), 창원한빛교회(윤희구 목사), 하동지역교회연합(고남교회당, 조기영목사), 마산교회(원대연 목사), 성도교회(박래영 목사), 마산동광교회(박해형 목사).

✦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제3집 「칼빈과 사회」 출판

총서 제3집 「칼빈과 사회」는 다양한 국내외 칼빈 학자들의 우수한 논문들로 편집되어 4월 중에 출판될 예정이며 연구논문의 제목과 집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칼빈과 사회개혁 (라은성교수, 국제신대원)
2. 칼빈과 자본주의 (유태화교수, 백석대)
3. 칼빈과 구호활동 (이상규교수, 고신대)
4. 칼빈과 성시화운동 (주도홍교수, 백석대)
5. 칼빈과 여성 (심창섭교수, 총신대신대원)
6. 칼빈과 질서와 형통성의 이해 (이신열교수, 고신대)
7. 피난민으로서의 칼빈 (H.J.Selderhuis, 화란기독교개혁신학대학)
8. 개혁주의 교회와 정치참여 (손봉호교수, 고신대)
9.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J. E. 올슨, 로드 아일랜드대학)

칼빈 출생 500주년 기념 한국 칼빈 학술대회

- “칼빈의 유산과 현대적 의의” -
(The Legacy of Calvin and Its Modern Meaning)



일 시 : 2009년 5월 13일(I), 5월 19일(II), 오후 2시
장 소 : 고신대학교 (세미나실 #4401)

주 최 :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후원교회 : 모든민족교회

후원기관 : 한국칼빈학회, 아시아칼빈학회

개혁주의 전문도서관 신간서적 입 현황 (2008.12~2009.2)

- Debus, Allen G. *Man and Nature in the Renaiss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Gogarten, Friedrich, *Luthers Theologie*, Tübingen: J. C. B. Mohr, 1967.
- Herrmann, Rudolf, *Luthers The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7.
- Hauschild, Wolf-Dieter, *Lehrbuch der Kirchen- und Dogmengeschichte, Bd 1*, Gutersloh: Kaiser/Gutersloher Verlagshaus, 2007.
- Müller, Rainer A. *Deutsche Geschichte in Quellen und Darstellung: Deutsche Geschichte 3 in Quellen und Darstellungen: Reformationszeit 1495-1555: Bd 3* Reclam, Stuttgart: Reclam, 1995-2000.
- Schnabel-Schule, Helga, *Die Reformation 1495 - 1555: Politik mit Theologie und Religion* Reclam, Stuttgart: Reclam, 2006.
- Blickle, Peter, *Die Reformation im Reich*, Stuttgart: E. Ulmer, 2000.
- Lutz, Heinrich, *Reformation und Gegenreformation*, München: Oldenbourg, 2002.
- Schorn-Schütte, Luise, *Die Reformation: Vorgeschichte, Verlauf, Wirkung*, München: C.H. Beck, 1996.
- Kaufmann, Thomas, *Martin Luther*, München: Beck, 2006.
- Steinwede, Dietrich, *Martin Luther: Leben und Wirken des Reformators*, Düsseldorf: Patmos, 2006.
- Herrmann, Horst, *Martin Luther*, Berlin: Aufbau Taschenbuch Verlag, 2003.
- Graf, Friedrich Wilhelm, *Der Protestantismus: Geschichte und Gegenwart*, München: C. H. Beck, 2006.
- Bierbrauer, Peter, *Die unterdrückte Reformation*, Zürich: Chronos, 1993.
- Blickle, Peter, Kunisch, Johannes, *Kommunalisierung und Christianisierung*, Berlin: Duncker & Humboldt, 1989.
- Blickle, Peter, *Gemeindereformation*, München: Oldenbourg, 1987.
- Blickle, Peter, *Die Revolution von 1525*, München: R. Oldenbourg, 2004.
- Korsch, Dietrich, *Martin Luther: Eine Einführung*,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Plasger, Georg, *Johannes Calvins Theologie - Eine Einführung*, Göttingen, Niedersachs.: Vandenhoeck & Ruprecht, 2008.
- Busch, Eberhard, *Gotteserkenntnis und Menschlichkeit: Einsichten in die Theologie Johannes Calvins*, Zürich: TVZ, Theologischer Verlag, 2006.
- Oberman, Heiko Augustinus, Schulze, Manfred, *Zwei Reformationen: Luther und Calvin, Alte und Neue Welt*, Berlin: Siedler, 2003.
- Opliz, Peter, *Calvin im Kontext der Schweizer Reformation, Historische und theologische Beiträge zur Calvinforschung*, Zürich: TVZ, Theologischer Verlag, 2003.
- Bossy, John, *Christianity in the West 1400-170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Eisenstein, Elizabeth L., *The Printing Press as an Agent of Chan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루터, 마틴, 『마틴 루터의 기도』, 유재덕 역, 서울: 브니엘, 2008.
- Blickle, Peter, *Unruhen in der standischen Gesellschaft 1300-1800*, München: R. Oldenbourg, 1988.
- Rodding, Gerhard, *Luther und Calvin: Briefe, die nie geschrieben wurden*, Neukirchen-Vluyn: AUSAAT, 2008.

Bulletin of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갱신과 부흥

REFORM & REVIVAL / 2009 Vol.2

갱신과 부흥 REFORM & REVIVAL / 2009 Vol.2
갱신과 부흥 (Reform & Revival) • 2009 Vol.2

권두언
이환봉
개혁교회의 과제 ② "오직 그리스도로"

개혁교회 강단
존칼빈
교회의 회복과 부흥(마 7:10-12)

홍반식
개혁신앙(신 3:61-12, 수 1:17-18)

개혁신학산책
황대우
참된 부흥과 종교개혁
이성호
존 오웬(John Owen)과 부흥

빌름 판 스파이커
마틴 부서(Martin Bucer)와 성령의 인치삼

개혁신앙 에세이
조성국
그리스도인과 사교육
편집부
마부작침(磨斧作針)과 개혁주의 건인문

서평
김철봉
육성호,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황대우
리처드 마우,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원을 가다』
이상웅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 정론』

Reform & Revival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Kosin University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Kosin University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49 - 1
전화 : 051-990-2266 / 2268 • 팩스 : 051-911-2526
홈페이지 : www.kirs.co.kr • E-mail : kirs@kosin.ac.kr

9 772005 421104 >
ISSN 2005-4211

개혁주의학술원